

사랑의열매

ISSUE **151**
2019 NOVEMBER 

나눔으로 행복한 사람들의 이야기

이방인 아닌 우리 이웃
사랑의열매와 함께
모두 존중하는
다문화 사회를 만들어요

이동식 목욕 차량 17대 기부한
‘효녀 가수’ 현숙



“잘 모아서 잘 나눈다”

혹시 TV에서 나오는 배우 전혜진의 CF 보셨나요? 마치 액션 누아르 영화의 한 장면을 연상시키는 이 영상은 바로 '사랑의열매' 광고입니다.



사랑의열매는 2018년 한 해 많은 분의 사랑을 모아 약 8,443억 원을 도움이 필요한 곳곳에 전달했습니다.

기운이 떨어지고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겨울이 돌아오면 사랑을 나눌 곳도 더 많아지죠.

2019년에도 마지막까지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을 잘 모아 정말로 필요한 곳에 제대로 전달하겠습니다.



사랑의열매 공식 SNS

 인스타그램 @fruits_of_love  페이스북 @chestkorea  블로그 blog.naver.com/nanum_in

 유튜브 www.youtube.com/channel/UCJCLW5U-CQXMvLrXDoiaw0g



따뜻한 곳에 쓰이길...
따뜻한 겨울이 되길 바라며...

#사랑의열매#사랑의온도계#나눔저금통
#따뜻한마음#작은마음#사랑#모두
#행복해지길



착한 내 새끼~~ 교통카드 안 챙겨나와
지하철 표 사고 마지막
환급받은 돈으로 작은 실천 하나!
가질 법도 한데 요기에 넣겠다~
기특한 내 아들~

#작은실천#사랑의열매#기특한아들
#착한아들#칭찬해#내아들#초등생
#아들스타그램
#뿌듯한엄마
#아들맘#일상#소통



아침 일찍 일어나는 건 힘들었지만
임실에 있는 노인복지회관 담벼락에
봉사 활동으로 @wantjiju 덕에 살면서
침으로 벽화도 그려보고 부족하지만
다같이 예쁘게 완성하니 뿌듯뿌듯
보람찬 주말

나눔
태그



#일상 #바자회
#사랑의열매 #기부행사
친구랑 있을 때
#가장 #빛나는 #딸들
언제이렇게했지!?!?
그만 크면 좋겠다 ㅠㅠ

#나눔스타그램 캠페인
세상을 따뜻한 온기로
가득하게 만들어요!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는
모습, 일상의 따뜻한 사랑과
온정을 느낄 수 있는 모습을
담아주세요.

.....

참여방법 일상의 따뜻한 모습,
나눔과 봉사의 현장, 또는 일상에서
만난 사랑의열매를 SNS에 올려주시고
해시태그를 달아주세요.

필수 해시태그
#나눔스타그램 #사랑의열매
당첨자 선정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에
해시태그와 함께 사진을 올려주신 분을
선정해 커피 기프트콘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에게는 개별 연락드립니다.



힘쓰는 건 동이들이~~~

#일상 #검둥건강 #쌍둥이 #아들들이
#형제 #효자둥이 #든든한 #일꾼들
#책기부 #기부증서

CONTENTS



사랑의열매

vol. 151 2019 / 11

발행인 예종석

발행일 2019년 11월 / 통권 151호

발행처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21길 39 사랑의열매회관 6층

만든이 사랑의열매 마케팅본부

구독안내 전화 02-6262-3000

팩스 02-6262-3100

홈페이지 www.chest.or.kr

등록일 2003년 5월 13일

등록번호 서울중, 라00605

기획, 편집디자인

한경매거진(주) 02-360-4856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도서잡지윤리강령 및 잡지윤리요강을
준수합니다.

본지에 게재된 기사나 사진 등 시각
자료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사전 동의
없이 어떠한 형태의 전재·복제를 금합니다.
이 책의 내용은 발행처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04 이방인 아닌 우리 이웃

사랑의열매와 함께 모두 존중하는 다문화 사회를 만들어요

PART 1 엄마는 모두 용감해

PART 2 이 땅에서 새싹이 잘 자라도록

PART 3 만나서 반가워요, 새 이웃들

10 커버스토리

이동식 목욕 차량 17대 기부한 '효녀 가수' 현숙

14 따뜻한 세상을 꿈꾸며

부산 아너 소사이어티 클럽 이끄는

(주)에스제이테크 박성진 대표이사

18 이슈

한국형 기부자맞춤기금은 계속된다

22 나눔 더하기

2019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 시상식 개최

24 나눔 아카데미

'2019 사랑의열매 아카데미-뭉쳐야 혁신이다'





26 착한기업

나눔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천하는 화성상공회의소

30 착한일터

인천소방본부, 소방관이 만드는 하루 '119원의 기적'

32 현장 스케치 1

나눔명문기업 1호 공동 가입식 현장

33 현장 스케치 2

한국여성변호사회·사랑의열매,
유산기부 법률 지원 업무 협약 체결

34 나의 '첫'사랑

기부의 계기, 잡으면 참 좋아

36 마음 책방

자기 말만 늘어놓는 사람, 혹시 멘탈 뱀파이어?

38 정신우의 먹을 수 있어 좋구나

겨울 바다의 전연, 미식어를 들라 하라!

40 힐링 타임

늦가을 환절기 건강관리 백서

44 전국 뉴스

중앙회와 전국 17개 지역별 소식

55 이달의 아너

56 독자 페이지



사랑의열매와 함께 모두 존중하는 다문화 사회를 만들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단일민족에 대한 개념이 약해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다문화에 대한 편견 어린 시선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사랑의열매는 차별 없이 다름을 인정하는 다양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아낌없이 지원하고 있다.





엄마는 모두 용감해

결혼이주여성은 엄마이기에 모국이 그리워도 꼭 참고, 다문화 가정을 제대로 알리기 위해 난생처음 연극 무대에 오를 용기도 냈다. 공부를 시작하고,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그녀들은 용감한 엄마들이다.

캄보디아 다문화 가정 모국 방문 지원 사업

Twinkle Together Project

단순히 결혼이주여성에게 모국 방문을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라 다문화 가정과 함께 문화 차이, 자녀 양육 문제, 네트워크 부족 등을 해결하도록 돕는다. 특히 캄보디아 다문화 가정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정 구성원이 건강한 주체로 성장하고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하나 금융그룹과 사랑의열매가 지원하고, 한국여성재단이 수행한 이 사업에는 캄보디아 다문화 가정 22가구 84명이 참여했다. 8월 중 캄보디아 프놈펜으로 떠난 22가구는 7박 9일 일정 동안 오랜만에 친정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캄보디아 문화 유적지를 둘러봤다. 한국에선 소극적이던 여성들이 캄보디아에선 통역을 하고, 모국을 소개하는 등 적극적인 아내, 엄마의 모습을 가족에게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다.



캄보디아 문화 유적지를 살펴보며 아내이자 엄마의 나라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시간을 보냈다.



자신들의 경험담을 하나의 연극으로 만들어 무대에 올릴 준비를 하는 다만세 연극단

mini interview 김영수&홀소콤 부부



“4년 만에 캄보디아에 가서 정말 좋았어요. 친정엄마가 사진으로만 보던 손자를 직접 품에 안으시고 기뻐하셨어요. 아들이 처음엔 외할머니를 낯설어했는데, 나중엔 서로 말은 안 통해도 친해졌어요. 친정 가족들과 헤어질 때 너무 슬펐지만, 그래도 잊지 못할 여행이 되었어요.” - 아내 홀소콤 씨

도 잊지 못할 여행이 되었어요.” - 아내 홀소콤 씨

“집사람이 통역을 잘해줘서 장모님과 불편하지 않게 소통할 수 있었어요. 한국에 있을 땐 모든 일을 거의 제가 주도했는데, 캄보디아에선 아내가 주도하니 기분이 남다르더라고요. 아내를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어요.” - 남편 김영수 씨

다만세(다함께 만드는 세상) 연극단

‘다만세 연극단’은 결혼이주여성이 직접 경험한 한국 생활에서의 정착 과정을 연극으로 표현하며 다문화 가정에 대한 긍정적인이고 올바른 인식을 알리려고 만반의 준비 중이다. 베트남, 중국, 우즈베키스탄 등 다양한 국적의 결혼이주여성 16명이 참여 중이다. 지난 3월부터 매주 연극의 기초, 현장 체험, 심화 교육 등을 통해 천천히 자신들만의 연극을 만들어왔다. 사랑의열매와 수성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이들을 물심양면 돕고 있다. 9개월 동안 열심히 준비한 연극은 오는 11월 중순 선보일 예정이다.

코딩융합 다문화이해강사 양성 과정

사랑의열매가 지원하고, 광주남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 센터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 결혼이주여성의 취업 지원을 위한 교육을 운영 중이다. 단순한 '다문화이해강사'가 아니라 4차 산업혁명과 코딩 교육에 대한 개념을 배우고, IT 교구를 활용해 콘텐츠를 만드는 등 새로운 IT 트렌드를 접목했다. 교육을 마친 후 지역아동센터, 초등학교, 유치원 등에 IT 교구를 활용한 다문화이해교육을 진행하는 강사로 활동한다.

“코딩융합 교육을 통해 한국 학생들에게 캄보디아 문화를 알리는 게 행복했습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강의를 하면서 제가 몰랐던 캄보디아 문화와 한국 문화를 배울 수 있어 좋았습니다. 앞으로 많이 배우고, 배운 걸 여러 사람에게 알려주고 싶습니다.” -코딩융합 다문화이해강사로 활동 중인 윤삼남 씨(캄보디아)



언어 장벽을 넘어 성실히 초등학교 교과과정을 공부 중인 엄마학교 엄마들

다문화엄마학교

우리나라 자녀 교육에서 엄마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유년기에 엄마에게 우리말을 제대로 배우고, 초등학교 과정에선 엄마의 가정학습 지도를 받는다. 하지만 다문화 가정 엄마들이 우리나라 초등학교 교육과정을 이해하고, 아이의 숙제를 도와주는 것은 힘들다. '다문화엄마학교'는 결혼이주여성이 초등학교 교과과정을 공부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한마음 교육봉사단에서 운영하는 전국 12개 다문화엄마학교 중 6곳(대구 경산, 전남 나주, 전북 김제, 경기 시흥, 충북 음성, 서울 성북)이 사랑의열매의 지원을 받고 있다. 5개월 동안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초등학교 과정 7개 과목을 공부한 후 초등학교 검정고시에 응시한다. 3~7월까지 공부한 1기 엄마들 상당수가 검정고시 합격 통보를 받을 정도로 공부 열의가 뜨겁다.



IT를 접목한 다문화이해교육을 진행하는 결혼이주여성들



PART 2

이 땅에서 새싹이 잘 자라도록

새싹을 틔우기 위해서는 좋은 토양, 적절한 물, 충분한 햇빛 등 많은 것이 필요하다.

사랑의열매에서는 다문화 가정의 '새싹'들이 잘 자라고 충분히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가 지원하고 한국농구발전연구소에서 운영하며 아이들이 맘껏 농구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있다. 프로 농구 경기 관람, 선수 초청 원 포인트 레슨, 해외 전지훈련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아이들의 자신감과 성취감을 높여준다.

인천 다문화 가정 및 중도 입국 청소년 지원 사업

청소년기 혹은 학령기에 부모를 따라 한국에 입국한 중도 입국 청소년들은 정체성 혼란, 언어 장벽, 문화적 차이로 인한 심리적 불안 등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포스코인터내셔널, 사랑의열매, 사단법인 글로벌비전은 다문화 가정 청소년과 중도 입국 청소년이 우리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 국적취득시험과 한국어능력시험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한국 역사·문화 유적지 방문과 문화 체험, 예술 활동 등을 통해 정서적 안정을 지원한다.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 중도 입국 청소년은 언어 장벽의 한계를 허물며 조금씩 한국과 한국 문화에 적응하고 있다. 또 공교육 진입, 대학 진학에 대한 목표 설정 등 각자 상황에 맞는 안정적인 한국 정착을 목표로 설정하는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다.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며 실력까지 인정받고 있는 글로벌 프렌즈

다문화 어린이 농구단, 글로벌 프렌즈

‘글로벌 프렌즈’는 매주 60여 명의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정기 연습에 나올 정도로 제법 규모가 있는 농구 교실이다. 소외감을 느끼기 쉬운 다문화 가정 어린이들은 팀 스포츠인 농구를 통해 공동체 의식을 배우고, 어울리는 즐거움을 느낀다. 취학 전 아동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16개국 60명의 아이가 활동 중이다. 단순히 취미를 넘어 2018년에는 다문화부 우승을 비롯해 2019년 유소년 전국 대항전에서 3위에 오르는 등 뛰어난 실력을 갖췄다. 하나투어문화재단이 구단주로, 사랑의열매



전통 음식을 만들고 전통 놀이를 하며 한국의 명절을 체험하는 중도 입국 청소년들

PART
3

만나서 반가워요, 새 이웃들

일반적으로 다문화 가정이라고 하면 외국인과 한국인이 결혼해 이룬 가정을 떠올리기 쉽다. 하지만 다문화 한부모 가정, 베트남 귀환 여성과 그의 자녀, 난민 가정 등 우리가 좀 더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야 하는 이웃이 늘어났다.



베트남 현지에서 귀환 여성과 자녀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한-베 함께 돌봄 프로젝트

2018년 말 기준, 한국 남성과 베트남 여성의 국제결혼 이혼 건수는 총 1만 9,894건으로 베트남 결혼이주여성 5명 중 1명은 가족 해체를 경험하는 셈이다. 이혼 후 베트남으로 돌아가는 귀환 여성은 경제적 자립에 매우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으며, 사회적 낙인 등으로 여러 현실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함께 귀환한 한-베(한국·베트남) 자녀도 어려움에 고스란히 노출된 상황이다. 이에 현대자동차그룹이 후원하고 사랑의열매가 지원하며, (사)유엔인권정책센터(KOCUN)가 수행하는 베트남 거주 한-베 다문화 가정을 돌보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베트남 견터시에 '한-베함께돌봄센터'를 설립해 베트남 귀환 여성 맞춤형 취·창업 위탁 교육, 베트남 현지 무료 법률 상

담 서비스, 무료 한글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다. 베트남 최초의 '한-베어린이다문화도서관'도 열어 한-베 자녀를 위한 프로그램부터 한-베 다문화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교류 프로그램 개발까지 건강한 다문화 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KB다문화케어센터

KB국민은행과 사랑의열매가 지원하고, 사단법인 해피피플에서 진행 중인 사업이다. 'KB다문화케어센터'는 가족 간의 사소통 훈련, 한국 사회 이해, 가족 심리 치료, 다문화 자녀 학습 지원 등 6개 프로그램을 통해 다문화 가정의 단단한 관계 형성을 돕는다. 다문화 가정 아동들의 진로 설계와 결혼이



주여성의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비전캠프', 경기도 광주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페스티벌을 기획·진행하는 '어울림' 등을 운영하고 있다. 지역에 이주노동자가 급격하게 늘어남에 따라 이들의 한국 생활 적응을 돕고, 동질감과 자존감을 회복하기 위해 캄보디아·베트남 등 국적 커뮤니티 형성을 지원한다. 그 외에도 이주노동자들을 위한 금융 교육과 의료 지원, 전문 기술을 배울 수 있는 직업 연수 과정을 지원하는 등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셀프 디자인, 스마일 어게인

한부모 가족은 부모는 모의 부재로 인해 가족 전체가 혼란과 갈등을 경험할 수 있다. 또 가족 기능을 상실하고 부정적 관계를 형성하는 등 많은 문제를 겪는다. 상록모자원은 사랑의 열매의 지원을 받아 한부모 가족 및 다문화 한부모 가족 20명



을 대상으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관계로 재정립할 수 있도록 가족 기능 역량 강화 교육 프로그램 '셀프 디자인, 스마일 어게인'을 진행하고 있다. 아이·청소년·부모별로 지금의 자신을 받아들이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집단 상담 프로그램이 이루어진다. 당당한 나를 발견하기 위해 떠나는 여행, 소중한 가족과 함께하는 가족 캠프, 가족의 결속력을 강화해주는 신명나는 사물놀이 등 자신을 긍정적 관점으로 바라보며 아름답게 디자인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난민가정통합지원 사업 'Spirit of Togetherness'

사랑의열매 나눔과꿈 사업에 선정되어 안산시 글로벌청소년센터에서 진행되는 난민가정통합지원 사업 'Spirit of Togetherness'. 안산시 관내와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사각지대 난민 가정의 아동, 청소년, 성인이 대상이다. 난민 가정의 안정적이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주거·의료·법률 등 난민의 욕구에 맞춘 긴급 지원이 이루어진다. 소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다양한 재능과 역량을 발굴할 수 있도록 하며, 재봉·한국어 교육 등 기초 역량 강화 교육을 통해 자립 기반을 닦을 수 있도록 한다. 지역 네트워크 연대 활동, 지역 주민 난민이해교육 등 지역사회의 이웃과 관계를 확대하며 사회 참여를 유도하고, 안정적인 한국 정착을 돕는다.

"우리는 도움을 받는 존재만이 아니라,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음에도 이런 기회가 있으면 언제든지 우리는 기쁘게 참여할 수 있어요." -세계인의날 기념행사에 재능 기부한 난민들





이동식목욕 차량 17대 기부한 '효녀 가수' 현숙

전국 방방곡곡에 목욕차가 가는 그날까지 노래할래요!

현숙은 대한민국 대표 효녀 가수다. 고향에 효열비를 세웠을 정도.

하지만 그녀는 아직도 무대에서 만나는 아버지 같고 어머니 같은 관객을 보면 눈시울이 뜨거워진다. 더 잘해드리지 못한 것 같아서 말이다. 그래서 그녀는 오늘도 노래한다. 자신을 향해 힘내라고 말해주는 부모님 같은 이웃을 위해.

목욕 차량, 꼭 자식 같은 마음

올해 5월 8일, 어버이날을 맞아 가수 현숙은 경남 산청군에 거동하기 힘든 어르신들을 위한 이동식 목욕 차량을 기부했다. 현숙이 기부한 차량은 산청복음노인복지센터로 전달돼 앞으로 지역 내 장애인이나 65세 이상의 노인 중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무료 목욕 서비스를 제공한다. 현숙은 2004년 전북 김제를 시작으로 인천 연평도, 강원도 정선군·인제군·횡성군, 전북 순창군, 전남 장흥군, 충북 영동군 등에 이동 목욕 차량을 기부하고 지역의 어르신·장애인 등 취약 계층을 위한 목욕 봉사를 이어왔다. 올해 산청군에 기부한 목욕 차량은 17번째다. 차량 한 대당 가격이 5,000만 원가량임을 감안하면 금액으로 환산할 경우 엄청난 거액이다. 언제 17대나 기부하셨냐며 놀라니 현숙은 특유의 천진한 웃음을 지어 보인다.

“부모님이 자식을 낳아 기르고 키울 때 힘든 줄

모르고 행복해하시잖아요. 그렇죠? 저 또한 그래요. 한 대 한 대 늘어가는 게 마치 자식 같아요.(웃음) 아직 제가 결혼을 안 해서 자식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동 목욕 차량이 한 대 한 대 늘어나는 게 너무 좋아요. 한 대 한 대 늘어날 때마다 저는 늘 시작 같아요. 이제 시작이다.”

이제 시작이라고 말하는 현숙을 보고 있자니, 인터뷰 초반이지만 무슨 질문과 답이 더 필요할까 싶었다. 그렇게 현숙은 매 순간 진심으로 따뜻한 사람이었다.



현숙은 2017년 경남 울주군에 14번째 이동 목욕차를 기부했다. 관계자들과 기념 촬영 모습

“저는 모든 분에게 해피 바이러스가 되고 싶어요. 돈이 아니어도, 목욕차가 아니어도 즐거운 노래로 어르신들을 기쁘게 해드리고, 어린아이들에게는 꿈과 희망을 주고 싶어요.”



부자라서 하는 게 아니다

값비싼 이동 목욕 차량을 십수 대씩 기부하니 혹자는 가수니까, 연예인이니까 돈이 많아서, 부자라서 하는 거란 오해도 한단다. 하지만 현숙은 그게 오해가 아니라 사실이어서 더 많이 기부할 수 있으면 좋겠다며 웃는다.

“때로는 마이너스인데도 한다면 믿으실까요? 그런데 그게 쓰면 채워지더라고요. 참 신기해요. 그렇죠? 우리는 월급을 받는 사람이 아니니

까 계획하는 게 힘들어요. 추운 겨울이나 더운 여름은 야외 무대가 없으니까 일도 줄고… 그런데 일이 들어오면 정말 너무 신나요. ‘아! 또 한 대 할 수 있겠구나, 또 할 수 있겠어!’ 싶어서요.” 현숙은 멀다, 힘들다 하면서 일을 따져본 적이 없다고 했다. 모든 지역에 이동 목욕 차량을 보내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 보니 그야말로 닥치는 대로 열심히 일한다. 노래하다 보면 그런 건 따지지도 않게 된다면서 웃는 현숙은 우리 모두에게 진짜 효녀고, 진짜 가수였다. 그만하면 됐다 싶기도 한데, 때로는 지칠 법도 한데, 어쩔 현숙은 언제나 오늘이나 한결같은가. 그녀는 의외로 인연에 대해 말했다.

“사실 사랑의열매와 인연을 맺은 것도 최신원(SK네트웍스) 회장님 덕분이에요. 최신원 회장님 정말 대단하시죠. 사람은 누굴 만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아요. 저도 최신원 회장님처럼 모든 분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는 해피 바이러스가 되고 싶어요.”

아너 소사이어티 가입까지 이어진

사랑의열매와의 인연

가수 현숙이 아픈 부모님을 십수 년간 지극히 보살핀 사연은 전 국민이 다 아는 사실이다. 하루하루 상황이 달라지는 아픈 부모님을 두고 콘서트를 연다는 것은 현숙에겐 엄두도 내지 못할 일이었다.

“날짜 잡아놓고 티켓 다 팔아놓고 실수하면 안 되잖아요. 약속은 법과 같은 건데… 그런데 그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죠. 최신원 회장님이 제가 부모님 돌보느라 콘서트도 못 한 걸 들으시고 워커히에서 콘서트를 할 수 있도록 주신 해주셨어요. 그때 사랑의열매와도 인연이 시작되었죠.(웃음)”

당시 콘서트 수익금은 사랑의열매를 통해 전액 기부했다. 그 인연을 시작으로 현숙은 아너소사이어티 회원에도 가입(2013년 5월)하고, 홍보대사도 역임하고, 이동 목욕 차량 기부도 시작하게 됐다. 인연에 대해 이야기하던 현숙은 돈이 아니더라도, 목욕 차량이 아니더라도 즐거운 노래를 불러서 어르신들을 기쁘게 해드리고, 어린이아이에겐 꿈과 희망을 갖게 해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저는요, 정말 아무것도 없이 가수라는 꿈 하나 가지고… 어머니가 챙겨주신 쌀 한 말하고 돈 1만 원, 김치 한 통 들고 고향을 떠나 여기까지 왔어요. 가수 된다고 어린 딸 서울 갔다고, 고향에선 난리가 났죠.(웃음) 하지만 어머니는 끝까지 절 믿어주셨어요. 그런 어머니가 없었다면 오늘의 저는 없었을 거예요.”

내 이웃 위해 씩씩하게 노래할 터

현숙의 고향 김제에서 서울까지, 지금이야 고속열차로 1시간 남짓이면 충분하지만, 당시에는 9시간이 넘는 먼 거리였다. 꿈을 이루겠다는 어린 현숙의 절실함이 느껴지고도 남는 대목이다. 그래서일까, 현숙은 “나는 할 수 있다”는 말을 좋아한다고 했다.

“저는 부모님을 원망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

요. 늘 이렇게 낳아주셔서 감사하고, 노래할 수 있는 재능을 주셔서 감사할 뿐이에요. 이렇게 건강한 게 감사하고, 볼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당당히 걸어 다닐 수 있는 게… 감사해요. 너무 높은 거 보지 않아요. 내가 살고 있는 오늘을 사랑해요.”

내가 살고 있는 오늘을 사랑한다는 말의 여운이 꽤 길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현숙은 한 동안 힘든 시간을 보냈다. 그런 그녀를 보듬은 것은 “현숙 씨가 씩씩해야 엄마 아빠가 좋아하실 것”이라고 말해주는 이웃들이었고, 팬들이었다. 현숙은 그때부터 훌훌 털고 열심히 노래하며 살아가고 있다. 요즘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신곡 ‘김치볶음밥’도 그런 이웃들의 마음에 대한 고마움이 시작이었다. 신곡 이야기를 하는 현숙의 표정이 그 어느 때보다 환하다.

“저야말로 혼밥 할 때가 많잖아요. 어느 날 밤늦게 배가 고파서 귀가했는데, 이웃이 김치볶음밥을 똑딱 해서 주시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이웃 가족과 같이 먹으니 혼밥하곤 비교가 안 되게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탄생한 노래예요.”

늘 희망적인 노래를 불러 나도, 당신도 다 할 수 있다고 응원하고 싶다는 현숙은 이미 모두의 해피 바이러스였다. 늘 이웃을 위해 노래하겠다는 그녀의 멋진 여정이 계속되길 바란다. ♡

“일이 들어오면 ‘아! 내년에도 한 대 또 할 수 있겠구나’ 싶어서 너무 기뻐요. 일이 또 들어오면 ‘어머, 이것도 도울 수 있고, 저것도 도울 수 있겠구나’ 싶어 너무 신이 나요.”



1 울주군에서 목욕 봉사를 하고 어르신께 인사를 받고 있다. 현숙은 목욕차 기부뿐 아니라 직접 목욕 봉사도 한다.
2 올해 어버이날 산청군에 17번째 목욕차를 기증하고 어르신들께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며 목욕 봉사까지 했다.

6년째 부산아너소사이어티 클럽 이끄는 (주)에스제이탱커 박성진 대표이사

“무료급식소에서 이웃과 눈 마주쳤을 때
아버지의 큰 뜻을 이해했어요”



어려운 이웃을 위해 큰돈을 기부하는 것만으로도 참 대단한 일이다.

부산아너소사이어티(이하아너) 클럽 박성진 회장은 기부는 물론 금쪽같은 시간, 따뜻한 마음까지 내주며 가까이 봉사 활동도 하고 있다. 게다가 오랜 시간 동안 변함없이 한결같은 자세로 임한다. 또 부산아너클럽 회원들과 함께 아너 문화를 선도하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가슴 넓은 ‘부산싸나이’다.

나눔 노블레스의 품격

무궁화장학재단을 통한 장학금 지원 사업, 시설 아동 자립 지원금을 적립하는 디딤씨앗통장 기부, 청소년을 선도·보호하고 범죄 예방에 앞장서는 부산법사랑위원회 후원 및 민간 자원봉사자 활동, 그 외 무료급식소 봉사, 연탄 배달 봉사 등 박성진 회장의 나눔 행보를 좇다 보면 숨이 찰 정도다. 이렇듯 많은 나눔 기관 중에서도 박성진 회장은 사랑의열매를 향한 남다른 애정을 드러내며 아너 홍보 대사를 자처한다.

“저는 2012년에 부산 아너 13호, 전국 아너 94호로 가입했어요. 당시엔 아너 숫자가 많지 않은 터라 다들 잘 몰랐는데요, 어느새 알음알음 소문이 나더라고요. 요즘 어느 모임에 가든 주변 분들이 저를 아너라고 소개해주세요. 아너로 제법 많이 알려진 터라 말과 행동을 조심하게 돼요. 몸가짐도 바르게 하고요. 좀 불편합니다.(웃음)”

2019년 10월 기준 부산 사랑의열매 아너는 총 176명으로, 이 중 13명이 박성진 회장의 소개로 가입한 아너 회원들이다. 심지어 상당수는 박 회장이 아너 가입을 제안하기 전에 먼저 가입 의사를 밝혔다고 하니 진정한 ‘영업의 고수’가 아닌가. 영업 비결을 묻자 박 회장은 “아마도 제가 살아가는 모습을 좋게 봐주신 것 같아요”라고 답했다. 그 대답은 겸손이나 그냥 하는 말이 아닌 진심임을 느낄 수 있었다.

“기부와 봉사 활동을 한 번만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해야 해요. 아동 보육 시설의 아이들이 봉사자에게 마음을 여는 데 2년 정도 걸려요. 지속적으로 만나면서 신뢰가 쌓이고 정이 깊어지면서 비로소 아이들에게서

작은 변화들이 감지돼요.”

부산 사랑의열매에는 다른 곳에는 없는 아너 제도가 있다. 1억 원 이상은 동일하게 아너, 3억 원 이상은 하이클래스 아너, 5억 원 이상은 노블레스 아너, 10억 원 이상은 프레지스티지 아너다. 지속적인 나눔 활동을 강조하던 박 회장과 나눔문화 확산 방안을 모색하던 부산 사랑의열매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낸 것. 아너 가입이 끝이 아니라 하이클래스 아너가 되기 위한 시작점으로 여기길 바라면서 말이다. 하이클래스 아너 1호가 된 박성진 회장은 최근 5억원 납부 약정을 맺으며 노블레스 아너 1호까지 되었다. 다른 아너들이 좋게 봐주는 그의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이렇게 철학을 지키며 묵묵히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아니었을까.



2014년부터 매월 정기 봉사 활동을 통해 보육원 아이들과 따뜻한 인연을 맺고 있다.

정을 나누고, 행복을 더한 사이

2012년 창단한 부산 아너 클럽에서는 클럽 활성화를 위해 2014년 박성진 회장을 새로운 아너 클럽 회장에 선출했다. 이후 ‘기부’, ‘봉사’, ‘만남과 교류’라는 세 가지 주제별로 다양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행해왔다. 특히 전국 아너 클럽 중 유일하게 정기적으로 봉사 활동을 하며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2014년 당시 열악한 환경에 처해 아너 회원들의 도움이 절실하던 매실보육원을 정기 봉사 활동지로 선정했다.

“저희가 만든 저녁 식사를 아이들과 같이 먹고요, 생일 파티는 물론 연말에는 크리스마스 파티 등도 하죠. 보육원에 있는 대부분의 아이는 사회복지사를 꿈꾸요. 자주 만나는 사람이 사회복지사다 보니 다른 직업군은 아예 생각조차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아너가 멘토가 되어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직접 조언과 도움을 주며 넓은 세상을 보여주려고 노력해요.”

거리를 두던 아이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아너에게 마음속 이야기를 할 정도로 마음을 열었다. 또 아이들은 저마다 자신의 꿈을 그리며 구체적으로 진로와 진학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5년 동안 아너들도 변했다. 처음엔 아이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라 머뭇거리던 회원들이 이제는 스스럼없이 아이 입에 밥을 넣어주고, 온기를 나눠주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올해 1월부터 정기 봉사 활동지가 동산원으로 바뀌었어요. 무척 아쉽죠. 어떻게든 인연을 이어가려고 했는데 잘 안 됐어요. 그렇게 마무리되고 얼마 후 매실보육원에서 인연을 맺은 대학생 아이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원하는 공부를 하며 멋있게 꿈을 키우던 녀석이었는데 갑자기 학교를 그만두겠다고 하더라고요. 다리가 너무 아파서 움직일 수 없다는 거예요.”

박 회장은 얼른 아너 클럽 회원인 청맥병원 박용범 원장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진료를 마친 박용범 원장은 이제 겨우 스물한 살인데 양다리 정맥이 엉망이라며 당장 수술





날짜를 잡았고, 거액의 수술비도 받지 않았다. 치료를 무사히 마친 대학생은 “제가 밥 한번 사겠습니다”라는 기특한 감사 인사를 전했다.

“우리 회원들이 봉사 활동하는 날이 기다려진다고 해요. 다른 사람들은 우리가 어려운 이웃을 위해 봉사한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우리를 위한 일이에요. 나눌수록 스스로가 제일 행복하거든요.”

부산 아너 클럽은 아동 보육 시설 정기 봉사 활동 외에도 무료급식소 봉사, 연탄 나눔 봉사 등을 하며 계속해서 나눔의 영역을 넓히고 있다. 행복한 회원들이 따뜻한 부산을 만드는 중이다.

같은 길을 걷는 아버지와 아들

박성진 회장에게 언제부터 나눔 활동을 시작했느냐고 물었더니 잠시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의 봉사 활동을 도우며 자연스럽게 해온 거라 어느 시기라고 특정할 수 없기 때문. 자연스럽게 아버지 이야기로 흘러갔다. 그의 아버지는 엄한 분이셨고, 성실하셨으며, 평생 나눔을 몸소 실천한 분이셨다.

“어린 시절 저희 형제들이 말을 안 들으면 아버지께선 이불 깔고 누워서 머리맡에 저희를 앉히신 다음 ‘이 아버지가 어렸을 땐 말이야~’로 시작하는 레퍼토리가 있었어요.(웃음) 학비를 제때 내지 못해 학교에서 여러 번 쫓겨났고, 구두닦이와 사환을 하며 번 돈으로 겨우 중·고등학교를 마치셨다고 해요. 가난 때문에 많이 배우지 못한 게 평

생 한으로 맺히신 것 같아요.”

아버지는 돈이 없어 학교를 그만두는 이웃이 있으면 넉넉하지 않은 집안 살림을 줄여가며 학비를 지원했고, 결인이 있으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무언가 손에 쥐여 보내곤 하셨다. 아버지는 입버릇처럼 “돈을 많이 벌면 꼭 장학재단을 만들고 싶다”는 말씀을 하셨다. 자신처럼 가난해서 배우지 못하는 아이가 없길 바라는 맘이셨을 터. 아버지는 끝내 그 꿈을 이루지 못하셨다. 하지만 아들 박성진 회장이 현재 무궁화장학재단 이사장도 맡고 있으니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은 셈이다. 지금처럼 무료급식소라는 게 흔하지 않던 시절,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매주 동네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10년 동안 무료로 식사를 제공했다.

“한번은 무료급식소에서 배식 봉사 활동을 하면서 배식을 받는 분과 눈을 맞췄거든요. 그때 알았죠. 아버지께서 무료급식소를 운영하신 이유를요. 배식을 기다리는 어려운 이웃의 모습에서 배웠던 본인의 어린 시절을 보신 것 같아요.”

아버지가 장학재단을 만들고 싶어 했듯 박성진 회장도 사회복지재단을 만들고 싶다는 비슷한 꿈이 있다. 돌아가신 아버지의 법명을 따 범향사회복지재단이라고 벌써 이름도 정했다. 미래는 아무도 알 수 없다고 하지만 10년 뒤, 아니 어쩌면 그보다 빨리 우리는 범향사회복지재단 박성진 이사장을 만날 것 같다는 확신이 든다. ❀

1 산타로 변신한 박성진 회장 2 매년 보육원 아이들과 함께 크리스마스를 기념하는 송년회를 진행하는 부산 아너 클럽





‘디쉐어 프로젝트’ 기금 전달식



(주)디쉐어 현승원 대표이사과 사랑의열매 예종석 회장이 기금 전달식을 마치고 기념 촬영을 했다.

새로운 나눔의 시작, 5·6·7호...

한국형 기부자맞춤기금은 계속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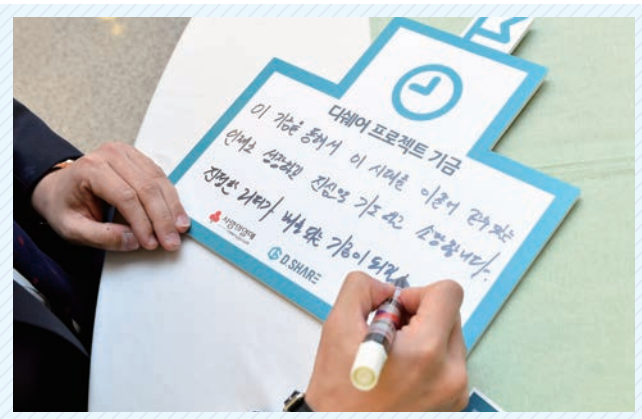
사랑의열매가 기획한 한국형 기부자맞춤기금이 (주)디쉐어(D.SHARE) 현승원 대표이사의 기부로 7호까지 전달식을 진행했다. 개인 기부의 활성화와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기 위해 시작한 기부자맞춤기금은 5·6·7호로 계속 이어져 새로운 나눔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10월 14일, 서울 중구 사랑의열매 회관 명예의 전당에서 (주)디쉐어(D.SHARE) 현승원 대표이사(이하 현 대표)의 아너 소사이어티 2,155호 가입 및 한국형 기부자맞춤기금 7호 전달식이 있었다. 현 대표는 사랑의열매에 10억 원을 기부 약정했다. 이번 기금은 한국형 기부자맞춤기금 7호 ‘디쉐어 프로젝트’ 기금으로 운영하며, 교육환경이 열악한 나라에 100개 학교 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100개 학교 설립할 7호 기금, 디쉐어 프로젝트

지식 공유 플랫폼 (주)디쉐어를 운영하는 현 대표는 인기 영어 강사 ‘존쌤’으로 잘 알려져 있다. 어린 시절 교회 장로이던 아버지가 선교사들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봉사 단체에 기부하는 모습을 보면서 현 대표도 자연스럽게 나눔을 배워왔다. 그는 2011년 영어 교육 회사를 설립해 수강생 10명이 등록할 때마다 1명의 아동을 돕는 결연 사업을 하며 본격적 기부를 시작했다. 현재 매년 6억 원 규모로 2,205명의 아동을 돕고 있다. 현 대표는 이날 전달식에서 “중학교 때부터 용돈으로 아버지의 후원 활동에 함께 참여하며 나눔의 행복을 깨우쳤다”며, “이는 아버지께 받은 소중한 유산이며, 나눔이 현재 사업 성장의 큰 동력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자리를 함께한 사랑의열매 예종석 회장은 현 대표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꿈을 공유한다는 (주)디쉐어의 이름처럼 교육으로 국내외 아동들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한국형 기부자맞춤기금 사업을 통해 사랑의열매가 함께 돕겠다”고 말했다. 현 대표의 7호 기금 ‘디쉐어 프로젝트’는 올해 캄보디아에 첫 번째 학교를 설립한다.



INTERVIEW

**기부자맞춤기금 최연소 기부자,
(주)디쉐어 현승원 대표이사**

**“소외된 아동들의 교육과 복지에
큰 관심 갖고 있다”**



기부자맞춤기금 7호 전달식과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 가입식을 동시에 했다. 소감이 궁금하다. 너무 좋은 기관과 의미 있는 일을 하게 되어 감사하게 생각한다. 일단

해야 할 좋은 일을 같이 할 수 있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파트너를 만났다는 것 자체가 기분 좋다.

교육이 낙후한 지역에 100개 학교를 세우는 게 목표라고 들었다. 나와 우리 회사는 일찍이 소외된 아동들의 교육과 복지에 큰 관심을 갖고 있었다. 그러던 중 지난해 베트남에 갔을 때, 현지 학교의 수준이 많이 낙후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때 삼성전자가 후원해 지은 학교를 보았고,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다. 베트남처럼 개발도상국으로 발전하는 나라에는 좋은 인재가 필요하다. 한국 같은 발전한 나라에서 양질의 교육과 비전을 제시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으로 동참했다.

나눔에 대해 조언해준다면? 나눔은 훈련이다. 1,000원이 있을 때 100원 기부하는 사람이 100억 원이 있을 때 10억 원을 기부할 수 있는 것이다. 나눔은 훈련이고 습관이고 마음가짐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기부를 통해 많은 사회 공헌을 하는 것으로 안다.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나? 나는 부족한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었다고 기억해주었으면 좋겠다. 사람들이 어떻게 돈을 벌고 어떻게 상속해줄까를 고민할 때, 번 돈을 의미 있게 쓸 수 있는 사람, 의미 있게 쓴 사람이라고 말해주길 바란다.



손주들과 즐거운 한때를 보내고 있는 고(故) 최우석 회장의 생전 모습

유산기부 롤모델이 된 5호 기금

기부자맞춤기금 5호 '구산기금'은 유산기부의 롤모델이 되고 있다. 지난 4월 향년 79세로 세상을 떠난 고(故) 최우석 전 삼성경제연구소 부회장의 아들 진혁(51) 씨와 딸 경원(49) 씨가

선친에게 상속받은 주식(총액은 10억 5,400만여 원)을 세 가족의 이름으로 사랑의열매에 기부했다. 부모님과 함께 자라온 은평구 구산동의 추억을 담아 '구산기금'으로 명명하고, 아동복지시설을 퇴소하는 청소년의 자립 및 장학 사업에 사용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5호 '구산기금'은 지난 9월 10일 국회에서 매년 9월 13일을 '대한민국 유산기부의 날'로 선포한 이후 첫 기부라 그 의미가 더욱 깊다. 좋은 일을 하라는 유언을 남긴 선친의 뜻을 기리기 위해 유산기부를 결심했다. 기부금 전달식도 비공개로 진행할 만큼 드러내길 조심스러워했으나, 보다 많은 유산기부가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기금 소식 공개를 결정했다.



최 전 회장의 가족이 사랑의열매로부터 받은 기부 인증패



상금으로 조성한 6호 기금, 기부의 폭 넓혀

이혜정 애터미 총단장의 6호 기금 ‘함께 여는 미래’도 좋은 기부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애터미 이혜정 총단장은 애터미의 개인 사업자로 활동하며 애터미 회원 최고 직급인 ‘임페리얼 마스터’에 승격해 승격식에서 받은 상금 10억 원을 기부하며 기부자맞춤기금 6호에 가입했다.

북한이탈아동과 다문화 가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교육 및 훈련 지원비로 쓰게 되는 6호 ‘함께 여는 미래’ 기금은 개인 상금으로 조성해 큰 화제를 낳기도 했다. 개인 기부의 폭을 보다 넓혔다는 평가다. 이혜정 총단장은 “주변 이웃들이 힘들고 어려운데 나 혼자 괜찮은 것은 의미가 없다. 더불어 잘살고 함께 행복한 세상을 꿈꾼다”면서, “나의 기부가 더 많은 개인 기부

자의 참여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는 소감을 밝혔다. 사랑의열매가 기획한 한국형 기부자맞춤기금은 어려운 독립 재단 설립이라는 절차 없이 기부자의 의사를 전적으로 반영해 기금 사업을 구성하고, 기부금의 손실 없이 기부금 전액을 사업비로 지원한다. ‘배달의민족’ 창업자 김봉진 (주)우아한형제들 대표의 기부금 50억 원으로 조성한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 지원 기금 ‘우아한 영향력 선순환 기금’을 1호로 개인 기부 활성화와 노블레스 오블리주 실천을 위한 새로운 나눔의 장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현승원 대표이사의 7호 기금 가입으로 보다 탄력을 받은 한국형 기부자맞춤기금은 앞으로도 계속 조성될 전망이다. ♣



기금 전달식 후 기념 촬영 중인 애터미 이혜정 총단장과 사랑의열매 김연순 사무총장



(왼쪽부터) 김연순 사무총장, 양승동 KBS 사장, 최신원 SK네트웍스(주) 대표이사 회장,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사랑한 대구시 지체장애인협회 수성구지회장, 김해곤 김안희의원 원장, 예종석 회장

최신원 아너 소사이어티 총대표, 국민훈장 동백장 수훈 영예

2019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 시상식 개최

사랑의열매 기부자 23명이 지난 10월 10일 개최한 '2019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을 수상했다. 아너 소사이어티 총대표를 맡고 있는 최신원 SK네트웍스(주) 대표이사 회장은 국민훈장인 동백장을 수훈하는 영예를 안았다. 일상 속에서 나눔을 실천하는 대한민국의 작은 영웅들을 만나보자.



'2019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 시상식에는 예종석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과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양승동 KBS 사장 그리고 나눔 실천 유공자, 나눔 단체 관계자 등 450여 명이 참석했다. 올해로 8회째를 맞는 나눔국민대상은 사랑의열매·보건복지부·KBS가 공동 주최하는 행사로, 평소 이웃을 위해 나눔을 실천한 분들과 기관을 발굴해 시상하고 있다. 이번 시상식에서는 인적 나눔, 물적 나눔, 생명 나눔, 희망 멘토링을 통해 이웃사랑을 실천한 155명이 나눔국민대상을 수상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념사를 통해 "국민 여러분의 자발적 나눔 활동은 모두가 일상 속에서 행복을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 실현에 큰 역할을 한다"며, "정부는 사회 곳곳에서 봉사·헌신하고 있는 숨은 영웅을 적극 발굴하고 일상에서 나눔을 실천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날 시상식에서 사랑의열매 기부자 수상은 모두 23건이었다. 사랑의열매 아너 소사이어티 총대표를 맡고 있는 최신원 SK네트웍스(주) 대표이사 회장은 대한민국 나눔국민대



국민포장을 받은 김해곤 김안과의원 원장

상의 최고 영예인 국민훈장 동백장을 받았다. 최신원 SK네트웍스(주) 대표이사 회장은 행복하다고 소감을 밝힌 뒤 “나의 권유로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에 가입해주신 분이 1,000명이 넘을 것”이라며, “그분들이 주신 상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고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사랑의열매 기부자 23명 수상 영예

최신원 SK네트웍스(주) 대표이사 회장은 사재(私財)로 132억원을 기부하며 장학 사업과 다문화 가정 및 북한이탈주민 지원, 주거 복지 취약 계층 지원, 세월호 피해 지원, 나눔 교육 발전을 위한 후원 등으로 우리 사회문제 해결과 발전을 위해 다양한 나눔을 실천해왔다. 특히 사랑의열매 고액 기부자 모임인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으로 활동하며 국내 개인 고액 기부 문화 확산에 기여했을 뿐 아니라, 세계공동모금회 리더십 위원회 위원으로 ‘1,000만 달러 라운드테이블’에 아시아 최



최신원 SK네트웍스(주) 대표이사 회장은 나눔국민대상 최고 영예인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훈하고 행복하다는 소감을 밝혔다.

초 멤버로 합류해 한국의 나눔 위상을 드높이며 글로벌 기부 문화 확산에도 공헌해왔다. 국민포장은 마산의 김해곤 김안과의원 원장이 수상했다. 김해곤 원장은 1991년부터 노령 인구 분포가 높은 도서 벽지 지역 어르신을 비롯해 지역사회 취약 계층을 위한 적극적인 의료 봉사 활동으로 지금까지 2만여 명을 무료 진료했다. 또 시각장애인을 위한 지원 사업과 소방관을 위한 라식 수술을 지원함과 동시에 20여 년간 생활환경이 어려운 의대생의 장학금을 지원하는 등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에 앞장서왔다. 김해곤 원장은 “고맙다는 말을 들었을 때 가장 마음이 푸근해진다”면서, “앞으로 더 많은 나눔을 펼쳐라고 격려하는 상이라 생각한다”고 소감을 말했다. 또 여성 관련 학술 연구를 지원하며 ‘핑크리본 캠페인’ 등을 통해 유방암 예방과 환자 치료를 위한 나눔을 펼쳐온 (주)아모레퍼시픽과 비영리 금융기관으로 사회 공헌 활동을 펼쳐온 세종중앙신용협동조합이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



수상을 위해 무대에 오른 사랑의열매 예총석 회장과 가수 박성민 씨

2019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 사랑의열매 기부자 수상 23인

- 국민훈장 동백장 최신원 SK네트웍스(주) 대표이사 회장
- 국민포장 김해곤 김안과의원 원장
- 대통령 표창 (주)아모레퍼시픽
세종중앙신용협동조합
- 국무총리 표창 두산인프라코어(주)
한성희 한성희치과 원장
-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서울보증보험(주) 외 15건
- 민간단체장상 오승현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차장



사회복지기관, 시민사회단체, 사회적경제 관계자 70여명이 함께한 <2019 사랑의열매 아카데미>

'2019 사랑의열매 아카데미-몽쳐야 혁신이다'

우리가 '통'할 때 시작되는 변화

지난 10월 16일부터 17일까지 1박 2일간 '2019 사랑의열매 아카데미-몽쳐야 혁신이다'가 천안 신라스테이에서 열렸다. 사회복지기관, 시민사회단체, 사회적경제 관계자 70여명이 본격적으로 한자리에 모여, 복지문제 해결의지로 뭉뚱 '몽쳤던' 열의 가득한 현장을 소개한다.

복지를 위한 뜨거운 만남

시대가 빠르게 변화하면서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도 한층 복잡하고 다양해졌다. 그에 따라 하나의 복지 단체가 홀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많아졌다. 이러한 시대 변화에 발맞추기 위해 사랑의열매에는 '2019 사랑의열매 아카데미-몽쳐야 혁신이다'(이하 사랑의열매 아카데미)를 통해 복지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하는 사회복지기관, 시민사회단체, 사회적경제가 머리는 맞대는 자리를 마련했다. 아카데미라는 이름답게 다양한 복지 문제를 해결하도록 업무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또한 배우는 데 그치지 않고 전국 각지에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나눔 기관 간에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최대한 다양한 영역과 지역의 사람이 모일 수 있도록 선정해 폭넓은 교류가 가능케 했다. 그렇게 선정해 시민사회단체, 사회복지기관, 사회적 경제 관계자 70여 명이 사랑의열매 아카데미에 참석했다. 1박 2일 동안 사랑의열매 아카데미에서 진행한 프

로그램은 크게 세 가지다. 사회복지, 혁신, 복지현장 그리고 협치의 관점에서 바라본 복지문제해결의 기반이 되는 협력방향과 변화된 환경에 대한 '특강' 그리고 '이야기공방'과 '해결책공방'이다. 이야기 공방에서는 사회복지기관·시민사회단체·사회적 경제가 복지 문제를 해



(주)정책공방유즈의 해결책 공방을 소개하는 인은숙 공동대표

결하기 위해 어떻게 협력하는지에 대한 사례를 듣는 시간이었다. 무대에 오른 3명의 패널이 활동하는 영역의 첫 글자를 더해 '사·시·사' 이야기 공방이라는 프로그램명이 탄생했다. 패널의 토론과 더불어 참가자들이 직접 자신의 사례를 소개하고 공유하는 등 모두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복지 문제를 해결하는 작지만 강한 10가지 방법

1박 2일의 일정 중 참가자들이 가장 기다린 시간을 꼽자면 아마도 10가지 해결책 공방일 듯하다. 해결책 공방에선 '유튜브 시대에 맞는 영상 캠페인 기술', '데이터와 IT로 사회문제 접근해보기' 등 현재 일상 업무를 바꾸는 작지만 강한 방법론 10가지가 제시됐다. 이를 위해 닷페이스 이선욱 PD, (사)마을 송문식 이사장,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 류강윤 매니저 등 각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 중인 전문가들이 연사로 참여해 자리를 빛내주었다. 가장 인상적인 점은 프로그램 진행 방식이었다. 여러 명의 참가자가 자신이 선택한 강사와 함께 원탁에 둘러앉아 자유롭게 대화를 나눴다. 원탁은 상석이 없어 서로 대등한 관계에서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했다. 그래서인지 10개의 테이블에 앉은 연사와 참가자들은 물리적으로 가까운 거리만큼이나 긴밀한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10가지 해결책 공방 중 눈에 띄는 곳을 소개하자면 (주)정책공방유즈의 인은숙 공동대표가 연사를 맡은 '시민 참여 공론장, 너와 나의 연결고리'였다. 인 대표는 그동안 진행한 시민 참여 공론장을 소개하고 실제 사례를 공유했다. 전문가의 정책은 사회의 생생한 고충을 담기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소통 중인 해결책 공방의 강사와 참가자들

어렵다며 시민 참여 공론장을 통해 우리의 복지 정책이 좋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기획자는 뒤로 빠지고 시민이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 방법을 제시한 곳도 있었다. 카카오임팩트의 김태완 매니저가 맡은 '변화를 위한 질문 재구성'이란 해결책 공방이었다. 그는 복지 사업을 시작하기에 앞서 문제를 정의하는 단계부터 치밀해야 하며, 문제 해결을 위한 가설을 세우고 검증하는 과정이 있어야 사회 변화라는 결실을 맺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제 해결의 옴은 시작 100up' 툴킷을 이용한 워크숍을 통해 참가자들이 문제 정의를 단계별로 나누어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왔다. 이번 만남은 각 기관과 지역에서만 활동하던 참가자들에게 신선한 자극이 되었을 듯하다. 사랑의열매 아카데미를 계기로 모두가 하나로 뭉쳐 놀라운 혁신을 이뤄내길 진심으로 바라본다. 🍀

INTERVIEW



“아이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환경과 정책을 만들고자 아이나 시민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대담을 기획하기도 했어요. 사실 제가 주제를 정해놓고 시작하는 경우도 많았는데, 오늘 (주)정책공방유즈 인은숙 공동대표님의 해결책 공방을 통해 스스로를 돌아보게 됐어요.”

—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부산아동옹호센터 김연희 대리

“지역아동센터를 15년간 운영하고 있는데, 세상이 어떻게 바뀌는지도 모른 채 정체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곳에 와서 다른 시도를 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으니 환기가 됐어요. 오늘 제가 들은 카카오임팩트의 문제 해결 툴킷을 실무에 바로 적용해보아겠습니다.”

— 다솜지역아동센터 김연희 센터장



나눔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천하는 화성상공회의소

“내실 있는 지원으로 기업과 이웃 살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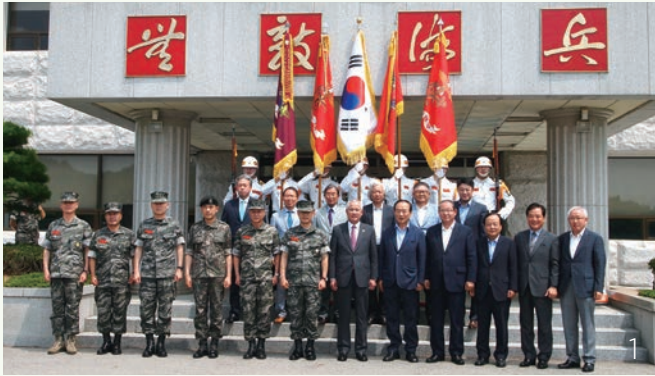
제조업체와 반도체·자동차 등 첨단산업과 문화·관광 서비스산업이 고루 조화를 이루고 있는 도시, 화성.
경기도의 핵심 도시인 이곳에 나눔과 기부 문화가 비약적으로 발전해 눈길을 끈다.
팔목할 만한 성과를 거둔 중심에는 화성상공회의소가 있다.

경기 사랑의열매는 여러 유관 기관 및 지자체와의 교류를 통해 각 지역의 복지 이슈를 발굴하고, 지역 특색에 맞는 모금 전략을 강구한다. 대표적으로 지자체, 시군 상공회의소 등 여러 단체 및 기관들과 협약함으로써 기부 문화를 확산하고 지역 주민의 복지 서비스를 증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화성시처럼 상권이 발달한 지역은 상공회의소와 함께

모금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화성상공회의소(이하 화성상의)는 1991년 창립한 민간경제 단체로 화성시 상공인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기관이다. 지난해 3월, 10대 회장인 박성권 (주)창림모아츠 대표이사 회장이 취임하며 경기 사랑의열매와 함께 나눔의 새 역사를 쓰고 있다.



회원친선골프대회는 화성상공회의소의 대표적 나눔 행사다. 회원들이 행사 전 이웃사랑과 페어플레이를 다짐하고 있다.



1 화성시 육군 51사단과 업무 협약을 맺고 전역 장병 취업과 대민 지원 활동에 협력하고 있다. 2 무의탁 홀몸 노인 시설인 애덕가정양로원에 방문해 성금을 전달한 화성상의 임직원들 3, 4 김장 김치와 쌀 나눔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회원들이 직접 김장 담그기에 참여해 뜻깊은 행사로 평가받고 있다.



민관 협력으로 나눔의 날개를 달다

경기 사랑의열매는 화성시·화성상공회의소와 함께 ‘화성시 지역 모금에 날개를 달다’ 모금 캠페인을 연중 진행하고 있다. 캠페인의 일환으로 ‘나눔리더·리더스클럽 캠페인’도 벌인다. 나눔리더·리더스클럽이란 지역사회의 나눔문화를 선도하는 기부자 개인과 단체를 뜻하며, 나눔리더는 1년 내 100만 원 이상 개인 기부자, 나눔리더스클럽은 3년 내 1,000만 원을 일 시 또는 약정 기부하는 것을 말한다. 지난해부터 연중 진행하는 ‘화성시 지역 모금에 날개를 달다’ 모금 캠페인은 화성시 기업의 나눔문화 확산과 개인 기부 활성화를 도모하고, 관내 저소득층의 후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박성권 회장은 지역사회 환원을 통해 상생하는 기업의 나눔 정신을 강조하며, 회원사들이 나눔 경영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하고 있다.

화성시 역시 화성시청과 우정읍사무소 내 ‘기부자 명예의 전당’을 조성해 캠페인 활성화에 힘을 보탰다. 이후 기업 대표, 우정읍사무소 직원, 주민으로 구성된 8인이 나눔리더에 단체

가입하는 등 활발한 나눔 캠페인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이 캠페인을 통해 모은 성금은 경기 사랑의열매를 통해 화성 시내 복지 문제 해결 및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사용한다. 사실 나눔이나 기부는 수치화된 금액이나 상품으로 큰 만족감을 줄 수 없다. 이럴 때는 기부자가 보람과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의미가 담긴 지표를 조성하는 것도 방법이다. 경기도 내 주요 명소에 설치한 사랑의열매 조형물, 화성시 기부자 명예의 전당은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경기 사랑의열매의 노력이라 할 수 있다. 특히 화성시 기부자 명예의 전당은 일반 시민이 일상적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시청 로비에 조성했다. 이렇게 하면 기부자 예우는 물론 지역 속에서 나눔문화가 자연스럽게 녹아드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자선골프 대회로 친선과 나눔의 윈윈 전략

화성상공회의소는 매년 ‘회원친선골프대회’를 개최한다. 이는 회원사들의 정보 교류와 친선을 위해 마련한 자리다. 박성권 회장은 “행사를 친선으로만 끝내지 않고 도네이션 이벤트



화성상의 회원들이 골프 대회로 마련한 이웃사랑 성금을 사랑의열매에 전달하고 있다.

를 만들어 의미를 남기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도 화성시 청계동 리베라CC에서 관내 사회복지시설 7개 단체에 이웃 돕기 성금 1억 원을 전달하는 행사를 진행했다. 박회장이 취임한 첫해에는 경기 사랑의열매에 6,000만여 원을, 올해는 1억 원의 성금을 기부한 것이다. 1년 사이 모금액이 비약적으로 급증한 비결은 따로 있었다. 골프 대회를 개최하는 리베라CC에서 할인받은 전체 차액을 기부하고, 27개 홀을 판매해 1개 홀을 회원사가 기부하는 방식을 택했다. 판매된

지정 홀에는 후원사의 상품과 배너로 꾸며 후원사 전용 홀로 만들었다. 기부를 하며 홍보 효과도 볼 수 있게 한 것이다. “회사 로고와 상품으로 꾸민 전용 홀에 들어서면 기분이 좋을 수밖에 없죠. 이런 기분 좋은 도네이션 이벤트는 기부자를 즐겁게 하고, 지켜보는 사람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지난해 처음 시도한 행사로 올해는 서로 참여하겠다고 나서 일찍부터 홀 판매가 종료되는 완판 기록을 세웠다. 의미 없이 지나갈 수 있는 행사에 박성권 회장의 기지가 발휘된 것이다. 화성상의는 회원친선골프대회 성금 외에도 자체 연말 기부금을 모아 경기 사랑의열매에 2년간 약 2억 원의 성금을 기탁했다. 이렇게 마련한 성금은 화성시 내 복지시설 지원, 외국인 저소득 근로자 지원 및 관내 저소득 계층의 생계비·의료비를 지원하며 화성시 사회복지 문제 해결의 마중물이 되고 있다.

1老1社 협약으로 지역사회 돌보다

1개의 경로당과 1개의 기업을 연결해 필요한 것을 지원하는 1老1社 협약은 지역사회의 성공적 상생 모델로 꼽을 수 있다. 관내 기업인과 지역 주민이 협력하고 소통하며 좋은 이웃 관계를 맺을 수 있게 한 것이다. 1老1社 협약을 위해 화성상의와



화성상의는 1老1社 협약으로 관내 기업과 경로당을 매칭해 노인복지에도 힘쓰고 있다.



화성상의 회원들이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 이후 '사랑의 온도탑' 성금을 전달하고 있다.

대한노인회 화성시지부가 협약을 맺었다. 1老1社 협약서에는 관내 기업과 경로당을 매치해 노인의 복지 증진과 일자리 창출, 경로당의 환경 개선과 노인 관련 지역 행사에 기업이 적극 참여한다는 것과 더불어 기타 협력이 가능한 사항을 협약한 기업과 경로당이 함께 하나간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1老1社는 '우리 동네에서 받은 도움을 경로당으로 돌려주자'는 취지에서 거리를 기준으로 매칭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과 인근 경로당을 연결해주는 것이다.

경로당에서 가장 절실한 것은 운영비 지원이었다. 경로당은 마을 노인들이 모여서 추운 겨울과 더운 여름을 나고 식사도 공동으로 해결하는데, 시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 화성상의가 해결책을 제시한 것이다. 박성권 회장은 “가까운 이웃을 돕는 것이 기업의 사회 공헌”이라고 화답하며 참여 회원사에 운영비 지원을 당부했다.

1老1社 협약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주와 근로자가 함께 봉사하며, 지역 주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이런 활동은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지만, 지역 주민들과 갈등 상황에 놓였을 때 문제 해결을 이끌어내는 운할제 역할을 톡톡히 한다. 박성권 회장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이웃을 위해 나누어 쓸 줄 아는 배려와 참여 정신이 있다면 누구나 '존경받는 기업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존경받는 기업인'은 화성상의의 모토이기도 하다. ❀

INTERVIEW

“나눔은 기업의 중요한 가치 경영입니다”

화성상공회의소 박성권 회장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는?

지금은 이익 추구보다 가치 경영을 우선시하는 시대이며, 기업은 이익 나눔을 실천하는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매출을 통해 이익을 내고 직원의 생계를 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 주민과 소통하고 서로 도우면서 기업을 운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주변의 소외된 이웃과 함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 문화 정착에도 화성상의가 앞장서려 합니다.

이웃을 돕는 일에 앞장서게 된 계기가 있나요?

화성상의 회장 이전에 봉사 단체 새마을지회장을 맡았습니다. 화성시 25개 읍·면·동 현장에서 활동하며 어려운 이웃을 마주할 기회가 많았습니다. 우리 주변에 경제적 뒷받침이 필요한 이웃이 많다는 것을 절감한 시간이었죠. 이후 화성상의 회장을 맡으면서 나눔에 대한 참여와 공감대 형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경기아너 107호)인데, 가입 이후에 달라진 점이 있다면?

아너 회원인 처남을 보면서 기회가 있으면 나도 가입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일이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겠다는 평소의 생각과 비슷했기 때문이지요. 아너 가입이 지위 향상이나 어떤 도움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달라진 점은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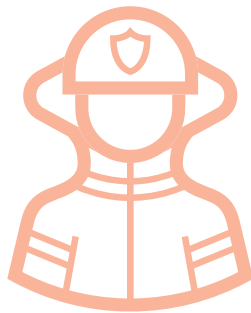
운영하는 사업체 (주)창림모아츠(노약자·장애인 생활 복지 차량 제작 업체)도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곳인데, 경영 철학이 궁금합니다.

저 역시 교통사고를 겪었고, 오랜 재활로 장애를 극복한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자동차를 설계하는 엔지니어였기 때문에 사고로 몸이 불편할 때 휠체어를 탄 사람도 자동차를 쉽게 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지요. 그때 꿈꾸던 상상을 실현하고 있는 셈입니다. 제가 지닌 생각과 기술이 세상을 따뜻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인천소방본부

소방관이 만드는 하루 '119원의 기적'

119는 위기 상황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숫자다. 시민의 슈퍼맨으로 불리는 119 소방대원들이 화재·사고 피해자를 돕기 위해 또다시 나섰다. 소방관 한 명이 하루 119원씩 적립한 돈으로 재난에 처한 이웃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119원의 기적'은 하루 119원씩 적립한 기금으로 화재와 사고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을 지원하는 기부 프로젝트다. 인천소방본부 소속 한 소방관의 제안으로 지난 7월 말에 시작한 기부에는 이미 1,000명이 넘는 소방공무원이 참여하고 있다. 모금을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377만여 원의 기금을 전달했고, 참여자가 늘어나는 만큼 기부 금액도 늘어나는 추세다. 119원의 기적 기부금 운용은 인천 사랑의열매가 맡았다. 인천소방본부와 인천 사랑의열매는 화재와 사고 피해를 당한 시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해 1인당 500만~2000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고통과 위기는 재난 이후에 시작된다

"불을 끄고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켰다는 뿌듯함은 잠시, 소방서로 복귀하는 발걸음은 언제나



『119원의 기적』 업무협약(MOU) 체결

2019. 8. 26(월)



사랑의열매를 들고 '119원의 기적' 협약식에 참석한 인천소방본부 소방관들



인천 사랑의열매와 인천소방본부는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 세밀한 협의를 나눴다.

가법지 않았습니다.”

소방관들은 수많은 생명을 구하고도 현장에서 마주한 안타까운 사연에 마음이 무겁다고 고백했다. 실질적인 고통과 위기는 재난 이후에 시작된다는 것을 인지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사고 이후 외상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경제적 어려움은 당사자 이외에는 알기 어렵다. 시민의 어려움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켜본 소방관이었기에 119원의 기적 프로젝트를 시작할 수 있었다. 소방관들은 새벽 공사 현장에서 추락한 남편을 이송하는 구급차 안에서 아이들에게 “일어나서 학교 가라”고 전화하던 아내, 주방용 믹서에 손이 낀 아이를 안고 오열하는 엄마, 불길에 휩싸인 집 안에서 어린 동생을 끌어안고 버틴 누나, 화재로 전 재산을 잃은 장애인 부부 등 많은 이를 옆에서 지켜보았다. 돕고 싶지만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서 안타까웠던 시간들이었다. 소방관들은 이런 마음을 모아 실행에 옮겼다.

이길섭 소방관은 “당장 입을 옷, 먹을 것을 제공할 수 있는 수준이라도 된다면 화재를 진압하고 돌아오는 발걸음이 무겁지만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서영주 소방관은 “어린이가 겪는 외상 후 스트레스가 많거든요. 상담이나 치료를 할 수 있는 지원이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라고 밝히며 심리적 치료를 당부하기도 했다. 119원의 기적으로 모금한 기금은 공정한 심사를 통해 화재나 각종 사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을 지원하는 데 사용하고, 이후 어린이 화상 환자 지원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심리 상담 등으로 지원 대상을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하루 119원, 한달 커피 한 잔 값으로 이웃을 살리다

매일 119원을 모으면 한 달에 3,570원. 커피 한 잔 값에 불과한 돈이지만 여럿이 모으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다. 서영재 소방위는 “혼자였다면 할 수 없는 일”이라며, “여럿이 힘을 보태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재난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을 소방관이 직접 돕는다는 데 의의가 있다. 김준태 소방행정과장은 “소방공무원은 공상을 당하거나 순직을 하면 사회단체에서 많은 도움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도 현장에서 만난 힘든 이웃을 돕기 위해 방법을 모색했다”고 말했다. 안지호 소방관은 “119원은 비록 작은 돈이지만,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조금씩 모아서 우리를 응원해준 시민을 도울 수 있어 다행이다”라는 소감을 밝혔다.

소방관들은 119원의 기적 프로젝트에 일반 시민도 동참할 수 있도록 인천 사랑의열매와 업무 협약을 맺고 ‘1 하루에 119원씩, 1 하나 된 마음이, 9 구조가 필요한 이웃에게 힘이 됩니다’라는 119 삼행시도 만들어 배포했다. 인천 소방공무원들의 자발적인 나눔으로 시작한 119원의 기적에 동참하는 시민이 100만 명만 모여도 한 달에 35억 원 이상의 큰 성금이 된다. 인천소방본부는 11월 8일 소방의 날 기념식 행사에 첫 번째 수혜자를 선정해 모금을 전달할 예정이다. 위험에 빠진 시민을 구조하는 일은 아무나 할 수 없지만, 어려운 시민을 돕는 일은 누구든 할 수 있다. 119원의 기적 프로젝트에 참여하면 누구나 시민의 영웅이 될 수 있다. 영웅이 되고 싶은 시민이라면 119원의 기적에 참여해보자. ♡



화재 진압 이후를 생각하는 마음이 '119원의 기적'을 만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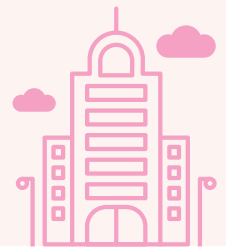


나눔명문기업호 가입자들이 지속적인 나눔을 약속했다.

중견·중소 기업 대상 신규 모금 사업

나눔명문기업 1호 공동 가입식 현장

기업의 고객 기부자 모임 '나눔명문기업'이 새롭게 탄생했다. 나눔명문기업은 사회 가치 창출을 통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데 앞장설 예정이다. 그 명예로운 1호 회원들의 공동 가입식 현장에 함께했다.



지난 9월 25일, 중구 사랑의열매 회관 대강당에서 '나눔명문기업'의 공동 가입식이 열렸다. 나눔명문기업은 사랑의열매가 대한민국 지역 사회의 나눔문화를 이끌어갈 사회 공헌 롤모델을 제시하고자 새롭게 시작한 모금 사업이다. 1억 원 이상 기부했거나 3년 이내 납부를 약속한 중견·중소 기업을 대상으로 가입 기업을 선정했다. 나눔명문기업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꾸준히 나눔을 실천해오고 있는 기업들의 사회 공헌 사업을 활성화하고, 지역사회에 사랑받는 기업으로 널리 알려 더욱 발전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했다. 이날 가입식에는 각 지회별로 1호 나눔명문기업에 선정된 기업의 대표자와 관계자 40여 명이 참석했다. 참여 기업은 (주)도원이엔씨(충남), (주)부산은행(부산), 삼정크리마스터(주)(경기), 하나투어문화재단(서울), (주)덕양(울산), (주)피유시스(경기북부), (주)아모르컨벤션웨딩(강원), (주)참고을(전북), 세종중앙신용협동조합(세종)이다.



이들을 환영하기 위해 단상에 오른 예종석 회장은 “이제 막 시작한 사업이지만 오늘 참여해주신 1호 기업들이 초석이 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 고객 기부자 모임으로 성장하길 바란다”며 인사를 전했다. 참석자들도 지역사회 공헌을 모범적으로 실천하며, 나눔명문기업에 걸맞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어 참석자들은 가입서 서명을 마치고 인증패와 헌편을 전달받았으며, 마지막으로 나눔 퍼포먼스 시간이 마련되었다.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UN-SDGs)를 반영해 새롭게 론칭한 사랑의열매 16개 사업을 상징하는 알록달록한 큐브가 무대 위에 등장했다. 참석자들이 이 큐브에 깃발을 꽂으며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향한 의지를 내보였다. 예종석 회장은 “숨은 중견 기업들이 나눔명문기업에 참여해 각 지회별로 2호, 3호 계속 늘어나길 바라며, 이를 통해 법인 기부가 확대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전했다. 🍀



국내 유산기부 문화 활성화 기를 마련

한국여성변호사회·사랑의열매, 유산기부 법률 지원 업무 협약 체결

사랑의열매와 한국여성변호사회가 유산기부 법률 지원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로써 국내 유산기부 문화의 정착 기틀이 마련됐다.

지난 10월 4일, 중구 사랑의열매 회관에서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조현옥)와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예종석)가 유산기부 법률 지원 업무 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은 유산기부자에 대한 법률 지원을 통해 국내 유산기부 문화를 보다 활성화하고자 마련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한국여성변호사회 조현옥 회장을 비롯해 사랑의열매 예종석 회장과 김효진 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유산과 비현금성 자산 기부 관련 자문 및 상담 변호사 연계, 유언 공증 관련 실무 지원 등 유산기부 진행 시 필요한 법률 영역 지원을 골자로 한다. 협약식에 참석한 조현옥 회장은 “각자가 지닌 조그만 힘으로 어려운 환경에 처한 이웃을 도울 때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 생긴다”면서,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유산기부 법률 지원은 물론,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많은 이를 도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국여성변호사회 10대 회장을 역임 중인 조현옥 회장은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이기도 하다. 이날 자리를 함께 한 예종석 회장은 “한국여성변호사회와의 유산기부 법률 지원 업무 협약을 통해 유산기부자들의 뜻을 더욱 잘 받아들이실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사랑의열매는 2013년 10월 유산기부자 모임 ‘레거시 클럽 (Legacy Club)’을 발족, 현재까지 50여 명(기부 규모 약 190억 원)의 유산기부 사례를 다루고 있다. 지난 9월에는 매년 9월 13일을 대한민국 유산기부의 날로 선포하는 ‘유산기부의 날 선포식’ 행사를 주관하며 국내 유산기부 문화의 활성화를 위해 앞장서고 있다. 이번 업무 협약 체결로 국내 유산기부 문화는 한 단계 도약할 것으로 본다. ♡



(왼쪽부터) 한국여성변호사회 이상희 사무차장, 윤석희 수석부회장, 조현옥 회장, 사랑의열매 예종석 회장, 김연순 사무총장, 김효진 자원개발본부장

기부의 계기, 잡으면 참 좋아

- 최병부 (주)삼정E&W 회장



남을 돕고 싶다는 마음이야 누구나 지니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게 특별한 사람만이 지니는 특별한 계획은 아닐 것이다. 다만 언제,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 같다. 계기가 있어야 한다는 말을 하고 싶은 것이다. 나도 누군가를 돕고 싶다는 마음을 항상 지니고 있었다. 하지만 사업을 하면서 바쁘게 지내다 보니 솔직히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몰랐다. 그때 계기가 된 사람이 바로 경남 사랑의열매 지회장이었다. 평소 가깝게 지내던 지인이었는데, 아너 소사이어티에 대해 내게 소상히 알려주었다. 매스컴을 통해 사랑의열매가 어떤 단체인지 익히 알고 있었기에 내 기부엔 망설임이 없었다. 그게 2010년의 일이었고, 나는 경남 3호, 전국 30호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이 되었다.

기부하고 나니 참 잘했다는 생각뿐

평소 하고 싶었던 일이지만, 막상 실현하고 보니 그 기분이 남달랐다. 예상한 것보다 기부 하길 참 잘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 정말 기분이 좋았다! 과분하게도 당시 모 주요 일 간지에 내가 기부한 소식이 보도되었는데, 마침 미국에서 공부하던 큰아들이 한국에 잠깐 귀국해 있을 때였다. 아들이 기사를 보고 나를 바라보던 눈빛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난다. 아버지인 나를 향한 존경과 자부심이 가득 담겨 있던 그 눈빛 말이다. 그때도 ‘아이고, 정말 기부하길 잘했구나’ 하는 생각부터 들었다. 그렇게 나눔을 시작한 내게 기부의 계기가 또 찾아왔다. 37년간 기업을 운영해오면서 숱한 어려움도 있었고, 스트레스도 만만찮았다. 그러면서 우연히 경주마와 인연을 맺기 시작했고, 마주라는 특별한 취미를 갖게 되었다. 내가 소유한 말들이 1등을 하면 그렇게 기쁠 수가 없다. 그 순간 사업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말끔히 사라졌다. 말들은 자식이나 다름없다. 내가 소유한 여러 말 중 ‘트리플나인’이라는 이름의 말이 있다. 이 말이 대통령배에서 2015년 첫 우승을 시작으로 무려 4연패를 했다. 또 그랑프리 통합 우승도 했다. 이는 한국 경마 역사상 이례적인 기록이다.

소중한 계기, 놓치지 말자

마주로서도 크나큰 영광이었다. 그 순간 또 좋은 계기를 내가 만났음을 직감했다.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순간을 놓치고 싶지 않았다. 나는 경남 사랑의열매에 우승마인 ‘트리플나인’의 명의로 1억 원을 기부했다. 그때도 당연히 하고 나니 참 좋았다. 하길 잘했다는 생각만 들었다. 그런 감정의 경험이 나에게 큰 동기부여가 된다. 혹자는 “당신은 돈이 많으니 그렇게 기부를 하겠지요”라고 말할지 모른다. 하지만 직접 해보니 그건 돈과 별 상관 없었다.

단언할 수 있다. 돈이 많다고 할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니다. 여유 있을 때 돕는다는 건 힘들다. 그냥 할 기회를 만났을 때, 계기가 있을 때 적은 금액이라도 하는 것이다. 그게 기부이고, 그게 나눔이더라. 그렇게만이 할 수 있는 거더라. 해보니 그렇더라. 기부를 경험한 모든 사람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지만, 나도 같은 말을 할 수밖에 없다. 이게 직접 해보면 남을 돕겠다고 시작했음에도 결국 내가 좋고, 내가 도움을 받는다는 마음이 강하다. ‘남을 돕는 게 결국 나를 돕는 거구나라는 결론에 도달하곤 한다. 다시 한번 말한다. “기부할 수 있는 계기가 온다면 꼭 잡길 바란다. 그거 잡으면 참 좋다.”

경남 3호, 전국 30호
아너 소사이어터 최병부 회장



자기 말만 늘어놓는 사람, 혹시 멘탈 뱀파이어?



사례 하나.

어릴 적부터 알고 지내온 친구 A. 만나면 안부를 묻고 건강은 어떤지 먼저 관심을 보인다. 그러나 정작 이야기를 시작하면 진지하게 듣지 않는다. 그러곤 억울한 일, 화난 일, 자랑스러운 일까지 자신의 이야기를 길게 늘어놓는다. 다른 화제를 꺼내도 “그런데 말이야” 하며 새로운 고민거리로 돌려버린다. 헤어지고 집에 돌아오면 피곤하고 힘이 빠진다. 그때 울리는 ○톡. “오늘 즐거웠어. 역시 넌 좋은 친구야. 조만간 또 만나자.”

사례 둘.

같은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선임 B. 월요일 아침이면 주말에 간 여행지나 맛집 이야기를 한참 늘어놓으며 시간을 빼앗는다. 조금이라도 부당한 업무 지시가 내려오면 일을 진행하는 동안 끊임 없이 불평을 늘어놓는다. 그러나 평가받을 때면 본인의 성과를 가장 먼저 드러낸다. 서운한 기색을 보이면 “내가 ○○ 씨를 정말 좋아하고 의지했는데, 서운하군”이라며 죄책감을 건드린다.

내게 반감을 갖지 않았는데도, 아니 호의를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만나거나 대화를 나누면 마음속 수분이 탈수되는 듯 피곤하고 힘이 빠지게 하는 사람. 프랑스 정신과 의사 스테판 클레르제는 <기운 빼앗는 사람, 내 인생에서 빼버리세요>(위즈덤하우스)에서 이야기만 나누어도 쉽게 지치게 만들고, 어느 순간 삶의 기(氣)까지 빼앗아가는 사람을 ‘멘탈 뱀파이어’라 지칭한다.

우리와 동떨어진 듯 쿨한 정서를 지닌 프랑스 의사의 조언에 열광하는 이유는 유독 혈연, 지연, 직장, 거래처, 모임 등 수많은 관계에서 자유롭지 못한 한국인에게 사이다처럼 시원하게 꽂히는 해답이 있기 때문이다. 멘탈 뱀파이어는 부정적 기운을 내뿜으며 다른 사람의 생기와 에너지를 영양분 삼아살아가는 존재라고 정의한다.

필요할 때만 연락해 고민이나 자랑거리를 쏟아부으며 절친이라 포장하는 친구, 인맥과 노하우 등을 교묘하게 빼앗으려는 직장 동료, 업무 성과를 가로채면서도 소속감을 강조하는 상사, 다 큰 딸의 인생에 참견하면서 희생이라 여기는 어머니, 일하는 아내를 지치게 만드는 한량 남편, 미래를 위해 사표를 내느니 마느니 징징거리면서 정작 둘의 미래는 관심 없는 연인... 타인의 소중한 감정과 에너지를 속주 삼아살아가는 이들은 다 멘탈 뱀파이어라고 할 만하다.

저자가 이들을 심각하게 고발하는 이유는 많은 사람이 이들의 존재와 폐해를 알지 못한 채 관계 안에서 끙끙대며 건강한 에너지를 무차별로 빼앗기고 있기 때문이다. 멘탈 뱀파이어를 식별하는 방법은 그 사람 옆에 있으면 기분이 어떤지, 또 어울리고 난 직후의 기분이 어떤지 생각해 보는 것이다. 멘탈 뱀파이어와 함께 있으면 정신적으로든, 감정적으로든 행복하거나 힘이 나거나 충만한 기분이 들지 않는다. 그들과 만나면 대화의 중심이 되지 못하며,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피곤하고 우울하고 의기소침하고 긴장되고 혼란스럽고 불안하고 탈진된 기분, 나아가 힘이 썩 빠지는 기분이 든다.

그렇다면 어떤 이가 멘탈 뱀파이어인가? 키워드는 자존감

이다. 이들의 자존감이 심각할 정도로 낮다(심각할 정도로 높아 나르시시스트의 모습을 지닌 이도 간혹 있다). 의존성이 강하고 자율성이 떨어져 혼자 있으면 힘을 못 쓰며, 다른 사람과 연결되지 않고는 스스로 충전할 수 없다. 필요할 때마다 다양한 관계를 이용해 자신의 기를 채워줄 사람을 찾아나선다.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라며 타인의 죄책감을 이용하는 동정심 유발 유형, 상대의 고통에는 철저히 무관심한 채 자신이 원하는 것만 이루어 주는 포식자 유형, 상대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며 곁에 붙잡아두려는 의지박약형, 미움받을까 봐 늘 불안해하고 끊임없이 사랑을 받아야 하는 의존형까지 어디선가 조금씩 본 사람들 아닌가.

‘먹이’가 되는 이들, 즉 멘탈이 털리는 사람의 특징은 감수성이 유독 예민하다는 것이다. 예민한 사람은 이별을 가장 두려워한다. 그래서 가족이든 친구든 자신의 이익은 생각하지 않고 상대의 무리한 요구도 묵묵히 감내한다. 거절하는 걸 어려워하고 남을 잘 돕는 사람, 칭찬에 약한 사람, 자주 죄책감을 가지며 완벽주의자의 성향이 있는 사람도 여기에 속한다.

자신감이 부족한 사람일수록 쉽게 멘탈 뱀파이어에게 노출되고 이용당한다. 따라서 자신을 사랑하며 자존감을 높이는 습관이 근본 해결책이다. 무례한 태도에 제동을 걸고, 자신을 존중하는 법을 배우며, 물건처럼 취급받을 때 예의를 지켜달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자신의 몸 상태에 관심을 갖고, 정신을 돌보고, 지적 능력을 키우는 일에 집중한다. 잘못된 관계라면 멈춰야 하며, 최소한 거리를 뒤흔어야 한다. 수혈을 한다 해도 빈혈까지 걸릴 필요는 없다. 멘탈 뱀파이어는 불청객이 틀림없지만, 건강하고 충만한 삶으로 다시 태어나게 해주는 고마운 존재가 될 수도 있다. 결정하는 사람은 당신 자신이다. ❀



꿈꾸는 백설기 일상 속에서 행복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유쾌한 칼럼니스트. 지치고 상처받은 이들에게 힘이 되는 글을 쓰고 싶어 한다. 일간지와 관공서 등에서 일했다.

정신우의 먹을 수 있어 좋구나

겨울 바다의 전언(傳言), 미식어(美食魚)를 들라 하라!

11월은 육지의 것을 모두 거둬내고 맹렬한 겨울 바다의 음식이 맛을 내는 때다. 홍합과 석화가 맛이 들기 시작하고, 미역의 싱싱한 냄새가 바람에 실려온다. 살이 짙 찬 바닷게들이 몸을 숨기기 전에 그 맛을 훔쳐 먹어야 한다. 나는 이 계절이면 눈부시게 파란 맛이 넘실거리는 생선이 생각난다. 이 무렵의 회가 맛있다는 것은 **고등어**와 **방어**를 맛본 후에야 할 수 있는 말이다.



먹어봐야 아는 진짜 겨울 생선의 맛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찌 회(膾: 얇게 썬 고기)를 좋아할까?회는 단 순히 물고기만을 이르는 것이 아니다. 채집과 수렵을 함께 해온 우리 역사 속에 회 문화가 자리 잡았다. 생선회와 육회가 다르다. 우리 민족은 날것을 요령껏 음식으로 만들어 먹으면서 회란 이름을 붙였다. 송이, 파, 미나리강화가 있고 꼬막, 게합, 생굴도 회로 즐기곤 했다. 잉어, 장어, 자라처럼 원기를 보익(補益)하기 위해 철마다 제철 산지의 식재료들은 우리 밥상의 귀한 주인공이 되었다. 따라서 회로 사용하는 식재료는 한결같이 신선함을 최우선으로 하고, 정갈하게 다루어야 했다.

나는 매일 고등어를 먹을 준비가 되어 있다

노르웨이 남자 3명이 한국에 여행을 왔다가 우리나라 생선구이집에 들어가 고등어구이와 조림을 시켰다. 간고등어구이를 먹어본 그들은 아주머니께 “이렇게 맛있는 생선은 처음이야”라며 엄지를 들어 보였는데, 아주머니가 한마디 하셨다. “너네 거야! 니들 거, 노르웨이, 노르웨이.”

노르웨이의 가장 맛있는 고등어는 서울에 있다는 사실. 그 맛의 비밀은 천일염과 간잡이의 기술이다.

현존하는 최고의 명인으로 불리는 이동삼 장인이 손에 쥐는 소금양은 귀신같이 일정해서 고등어 한 손마다 그 맛이 다름이 없었다. 고등어는 염장하지 않으면 보관하기 어려울 만큼 성질이 드센 생선이어서 사실 회로 먹는 경우는 어민(漁民) 정도였지만, 유통의 발달로 오늘날은 장안의 횡집들에서 계절 메뉴로 펄펄 뛰는 생고등어를 내놓는다. 고등어는 공치, 정어리 같은 회유어(回遊魚)로 철마다 풍년이 들었지만 지금은 다 옛말이다. “양식(養殖) 없는 바다는 없다”란 말처럼 우리 바다는 수자원이 메말라버렸다. 대부분의 식용 물고기는 상당수 양식 수산물과 수입 수산물에 의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엔 제주도 여행길에 고등어회를 맛보려고 종종 단골집인 민선 식당과 원담에 들른다. 갓 잡은 고등어회는 윤기가 난다. 그야말로 탄력이 넘치는 살 맛은 쫄깃하다. 고등어회를 더 맛있게 먹는 방법은 쌀밥과 먹는 것이다. 갯잎에 고등어 살을 올리고 쌈장 조금과 채 썬 양파와 고추를 넣고 싸서 한입에 먹는다. 목은지를 충분히 씻어 물기를 제거하고 싸서 먹어도 별미다. 고등어는 어떻게 먹어도 맛있다.



가을 방어, 너를 사랑‘회’~

여름엔 민어를 못 먹어서 환장하더니, 가을이 되니 너도나도 방어를 찾는다. 일본에서 제철 방어는 참치만큼이나 인기가 좋다. 가격도 마찬가지다. 횡감용 생선은 크기가 클수록 가격이 비싸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은 큰 식재료에 아낌없이 값을 지불하는데, 없어서 못 팔기에 요물(妖物)이고 귀물(貴物)이다.

방어가 특히 사랑받는 이유는 맛 때문이다. 버릴 것이 없고, 부위마다 맛이 달라 요리에 쓰임이 많으며, 맛이 평하고 달아 넉넉히 먹어도 속에 무리가 가지 않으니 고급 요리의 향연에 방어회의 가치는 특별하다. 다만 방어회는 먹을 때 방어사상충 같은 회충을 조심해야 한다.

자연산 방어의 경우 겨울 방어가 가장 안전하고, 그 외의 계절은 전문점에서 전문가의 손질과 정을 거쳐야 한다. 국내의 크고 작은 횡집과 이자카야 등에서는 일본산 양식 방어를 사용한다. 사료를 먹고 자라서 회충도 없고, 원전 사고의 안전 문제도 모두 검증받은 식재료니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걱정해야 할 일은 주사(酒邪)다. 저렇게 넉넉한 양의 맛있는 방어를 모두 먹어치우려면 과음을 하게 된다.

그래도 방어를 포기할 수 없다. 특히 메타급 방어라도 접견하는 날이면 최선을 다해 방어를 맛보아야 한다. 평균 몸길이 1m 이상을 넘기면 더 이상 이 물고기는 방어가 아니라 다른 존재의 맛이 난다. 특히 지방이 농축된 가마살은 눈처럼 녹아내린다. 이 시기에 제주에 간다면 방어를 꼭 맛보아야 한다. 제주도 모슬포 항구는 예전부터 방어 항구로 유명하기 때문이다. ❀



정신우 셰프는 국내 1호 남성 푸드 스타일리스트, 오너 셰프 레스토랑 운영 등 화려한 이력을 지녔으며, 현재 플레이트 키친 스튜디오의 대표로 요리 강사와 멘토로 활약 중이다. 2014년 흥선암을 선고받았으나 환자식 레시피를 소개하는 등 요리에 대한 열정은 끝이 없다. 최근 저서로는 먹방 에세이 〈먹으면서 먹는 얘기할 때가 제일 좋아〉, 〈365 샐러드〉 등이 있다.

아침저녁 쌀쌀해지면 내 몸을 챙겨야 할 때

늦가을 환절기 건강관리 백서

환절기가 되면 우리 몸은 크고 작은 이상 신호를 보낸다.
큰 일교차, 차고 건조한 공기 등으로 신체 면역 기능도 떨어진 상태이므로
평소보다 내 몸을 세심하게 챙겨야 한다.
환절기 건강관리의 모든 것을 알아보았다.



키워드로 보는 환절기 건강관리법

잘못된 건강 정보는 오히려 모르는 것만 못하다. 환절기 건강관리에 대해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하다. 경희123환의원 박상민 원장의 도움을 받아 환절기 건강 정보를 키워드로 정리했다.

환절기 면역력 저하

우리 몸은 항상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려는 항상성이 있다. 계절에 관계없이 36.5℃의 체온을 유지해야 하는데, 일교차가 커지면 이 항상성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따라서 면역력 저하 또는 면역 불균형이 나타난다.

환절기증후군

기온이 떨어지면 우리 몸은 체온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생겨 다양한 신체 증상이 나타난다. 코가 건조하고 막히는 증상, 여기저기 쑤시고 아픈 몸살 증상, 복부 팽만감, 배탈, 어깨 결림, 감기 기운, 호흡 불편감 등이 나타나는 것을 환절기증후군이라 한다.



대표 질병

공기가 차고 건조해져 감기 등 호흡기 질환이 많이 발생한다. 불면증, 알레르기성 질환부터 통풍, 퇴행성관절염, 편도선염도 나타날 수 있다. 기온이 갑자기 떨어지면 고혈압, 심장병, 당뇨병, 동맥경화증 등 성인병이 악화할 위험성도 높아지므로 특히 주의해야 한다.

진료받아야 할 증상

가을철에 가장 조심해야 할 질환은 감기다. 감기는 신체의 저항력이 떨어졌을 때 각종 바이러스에 의해 발병한다. 감기에 걸렸을 땀 몸을 잘 보호해주면 금방 낫는다. 하지만 어린이나 노약자는 기관지염, 폐렴, 축농증, 중이염 등 심각한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결코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된다.

몸이 허할 땐 보약 한 첩?

환절기에 접어들면서 몸에 무리가 느껴지면 자연스럽게 보약을 떠올리게 된다. 만성피로를 느끼거나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하다면 공진단이, 운동 또는 육체노동으로 생긴 피로에는 쌍화탕 계통이, 노인과 만성 소모성 질환이나 생리통·생리 불순이 심하다면 경옥고가 좋다. 다만 체질별로 맞는 약이 있기 때문에 한의사에게 진단을 받고 탕약 처방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맞춤 처방을 통해 개인이 지닌 병독을 없애 건강을 개선하고, 면역 불균형도 해소할 수 있다.

몸속 건강 더해주는 음식

건강관리를 하는데 잘 먹는 것도 중요하다.
환절기에 가까이 하면 좋은 건강 음식을 소개한다.

면역력 높여주는 비타민 C 가득~ 귤

잘 알다시피 귤에는 비타민 C가 풍부하게 들어 있다. 비타민 C는 면역력을 높여주고 항산화 작용을 해 감기 예방과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된다. 이 밖에도 모세혈관을 튼튼하게 만들어 고혈압과 동맥경화를 예방하는 비타민 P, 비타민 E가 풍부하게 들어 있다.

오래된 기침 완화 오미자

오미자에는 시잔드린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있어 다양한 염증으로부터 몸을 보호해 준다. 항스트레스 작용으로 면역 기능 개선도 돕는다. 일반 피로 해소는 물론 간 질환 개선에도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오래된 기침이나 혈압약을 복용하는 환자의 기침에는 오미자가 매우 효과적이다.

기침 증상 개선 무

무에 함유된 시니그린이라는 성분은 기관지 내 점막을 강화하고 기침 증상을 완화하는데 도움을 준다. 또 식이 섬유와 무기질이 풍부할 뿐 아니라, 탄수화물과 지방, 단백질이 분해하는 효소가 많이 들어 있다. 밀가루 음식을 먹을 때 단무지, 깍두기 같은 무로 만든 반찬을 곁들여 먹으면 소화에 도움이 된다.



알레르기 반응 완화 생강

생강은 진저롤, 진저론 같은 성분이 들어 있어 염증에 대한 면역 작용을 촉진한다. 또 염증의 확산을 막고 알레르기 반응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 소화불량, 헛구역질, 멀미 같은 증상 개선에도 효과적이다. 단, 생강을 빈속에 먹거나 과량 섭취할 경우 위장 점막을 자극해 속이 쓰리거나 열이 나는 부작용이 발생하니 주의한다.

환절기 건강 챙기는 생활 수칙

일상에서 지키는 작은 습관 하나가 건강관리에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
환절기 건강관리 생활 수칙, 이것만 지켜도 충분하다.

외출 시 여벌 옷 챙기기

환절기의 큰 일교차는 우리 몸에 큰 스트레스로 작용해 면역력 불균형을 초래한다. 외출 시에는 얇은 옷을 여러 겹 겹쳐 입거나 여벌 옷을 챙긴다. 기온 변화에 따라 옷을 입거나 벗어 몸이 바깥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한다.

충분한 수면 취하기

환절기와 겨울에는 일조량이 줄어들면서 수면과 각성 주기에 영향을 미친다. 멜라토닌은 수면을 유도하는 역할을 하는데, 주로 빛의 자극에 따라 생성량이 조절되기 때문. 충분한 수면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반신욕을 하면 숙면을 취하는데 도움이 된다.



실내 온도와 습도 조절하기

가을철 적정 실내 온도는 20~24도, 습도는 50~60%다. 가습기나 젖은 수건을 널어 실내 습도가 떨어지지 않도록 유지한다. 또 하루 서너 번 충분한 환기를 시켜 실내 공기에 떠다니는 바이러스 등을 배출한다.

개인위생 철저히 지키기

환절기에는 바이러스가 증식하기 쉽고, 면역력이 저하되며 감염되기 쉽다. 외출 후 손발을 씻기만 해도 감염성 질환에 걸릴 확률은 떨어진다. 손을 씻을 때에는 비누를 사용해 손가락 사이, 손바닥 등 구석구석 닦고, 흐르는 물에 충분히 씻어준다.

충분한 수분 섭취하기

건조한 환절기에는 호흡기 속기도 점막이 건조해지기 쉽다. 그러면 점막이 외부 이물질을 차단하는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해 바이러스가 몸속에 쉽게 침투한다. 평소보다 물을 자주 마셔서 점막이 마르지 않도록 한다.

착한가게를 소개합니다



한약을 통한 한방내과 치료가 강점

경희123한의원 박상민 원장 경희대학교와 동 대학원을 졸업한 침구과 전문의이자 한의학 박사로, 경희의료원 한방병원 수련의와 동서관절센터 임상연구원 등을 거치며 경험과 실력을 쌓았다. 대한한의학회 학술상 우수논문상, 경희의료원 한방병원 수련의 논문상 동상 수상 등 화려한 수상 경력을 갖고 있다. 특히 자생한방병원에 있을 때 전 의료진 중 완쾌 환자(동영상) 1위를 달성하며 뛰어난 실력을 인정받았다. 추나요법, 약침 치료 및 한약 치료를 통해 일자목, 디스크, 협착증, 교통사고 후유증을 치료하며, 만성 소화기 질환, 만성 폐 질환, 만성 알레르기 질환을 한약으로 치료하는 등 한약을 통한 한방내과 치료가 강점이다. 2013년부터 지금까지 사랑의열매에 꾸준한 나눔 활동을 이어오며 따뜻한 인상을 펼치고 있다.

중앙회



(왼쪽 네 번째부터) 노동보훈사회부 부국장 카오 티 탄 뚜이, 베트남 NPO 디렉터 응웬 탄 흥, 사랑의열매 최은숙 전략기획본부장, 강주현 사회공헌본부장, 김누리 마케팅본부장이 교육에 참석한 베트남 정부 관계자 및 NPO 종사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랑의열매, 베트남에 공동모금 노하우 전수

사랑의열매가 10월 24일과 25일 양일간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에서 한국의 공동모금 노하우를 전수하는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지난 8월 사랑의열매와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 간 민간 자원 개발 지식 공유를 위한 MOU 체결 후 첫 이행 내용으로 추진됐다.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와 비영리단체를 대상으로 진행한 이번 교육은 사랑의열매 공동모금제도 및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등 관련 법령, 프로젝트 모델을 통한 민간 파트너십, 기업의 사회 공헌 활동 사례 소개 등이 주요 골자다. 사랑의열매는 국내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국제 교류를 통해 공동모금제도를 기반으로 한 국내 민간 복지 노하우를 전수하고, 사회복지 협력으로 글로벌 기부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한편 사랑의열매는 지난 8월 한국·베트남 정부 간 사회복지 협력 확대를 위해 마련한 보건복지부와 베트남 정부 간의 MOU 일환으로 베



트남 노동보훈사회부와 민간 교류 협력을 위한 MOU를 직접 체결했다. 협약 내용은 공동모금제도에 관한 법령과 관련 정보 공유, 민간 자원 개발 등 민간 복지 활성화 등을 위한 협력 체계 구축으로 베트남 NPO 교육 등을 기획했다.



사랑의열매 김효진 자원개발본부장(오른쪽 두 번째)과 OK금융그룹 탁용원 이사(왼쪽 두 번째)를 비롯한 임직원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OK금융그룹 임직원, 창립 20주년 기념으로 약 2,000만 원 기부

OK금융그룹이 지난 10월 5일 창립 20주년을 맞았다. 이날 진행된 창립 기념일 행사에서 OK금융그룹은 전국 임직원의 참여로 조성한 기부금 약 2,000만 원을 사랑의열매에 전달했다.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는 OK금융그룹 임직원 2,500여 명이 참석했으며, '만 원의 행복'이라는 이벤트를 통해 임직원의 기부가 이루어졌다. 이번 기획은 OK금융그룹의 사회 공헌 활동에 임직원들이 직접 힘을 보태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성금 전달식은 창립 기념식 본 행사에서 바로 진행됐으며, OK금융그룹의 탁용원 이사와 사랑의열매의 김효진 자원개

발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OK금융그룹 탁용원 이사는 “창립 20주년을 맞이해 OK금융그룹 임직원과 함께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 기쁘다”며, “OK금융그룹은 도움이 필요한 지역사회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OK금융그룹은 지난 6월 사랑의열매와 지역사회 공헌을 위한 사회 공헌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적극적인 나눔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번 성금을 포함해 OK금융그룹이 사랑의열매에 전달한 전체 누적 기부액은 총 2억 2,000만 원이다. 기부금은 매 분기 어려운 이웃을 위한 생활 지원금으로 사용하고 있다.

조선내화 김준식 부회장, 결혼 40주년 기념 아너 회원 가입

조선내화 김준식 부회장이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으로 가입했다. 평소 나눔에 대한 소신이 있던 아내의 조언으로 아너 회원 가입을 생각 중이던 김준식 부회장은 지난 9월 결혼 40주년을 맞아 가입을 결심했다. '돈을 벌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닌, 멋있게 쓰는 법을 배우는 삶'이라는 철학을 지닌 김준식 부회장은 "결혼 40주년을 맞아 아너 회원이 된 것은 우리 부부에게 큰 의미가 있다"고 소감을 밝혔다.



쌀치킨 전문 브랜드 (주)바름 '쌀쌀맞은 닭' 본사 및 가맹점 착한가게 단체 가입

치킨 프랜차이즈 (주)바름(대표이사 이상희)이 운영하는 치킨 브랜드 '쌀쌀맞은 닭'이 10월 7일 오후 착한가게 단체 가입을 협약했다. 이번 협약으로 본사 및 6개 가맹점은 매월 수익의 일부를 기탁한다. 기탁금은 지역사회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사용한다. 이상희 대표이사는 "그동안 현물로만 기부해오다 착한가게라는 좋은 나눔에 본사와 지점이 함께할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사회 공헌 업무 협약 체결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와 경기 사랑의열매가 사회 공헌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와 경기 사랑의 열매는 나눔 네트워크를 구축해 경기도 내 빈곤·질병·소외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모금 캠페인을 진행한다.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는 이번 협약을 통해 내부 기부 참여와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치며, 경기도 내 복지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스타필드 고양, 어린이 가방 안전 덮개 3,400개 지원

지난 10월 15일 동산초등학교에서 스타필드 고양(지점장 박세호)이 고양시 덕양구 관내 초등학교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해 2,000만 원 상당의 가방 안전 덮개 3,400개를 기증했다. 가방 안전 덮개는 덕양구의 22개 초등학교 1학년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박세호 지점장은 "스타필드 고양은 저소득층 반찬 사업, 생계비 지원 사업 등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 많은 아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광주

(주)대유에이텍, 광주 1호 나눔명문기업 가입

지난 9월 26일 (주)대유에이텍(대표 권의경)이 나눔명문기업 광주 1호에 가입했다. (주)대유에이텍은 연말 희망나눔 캠페인과 사회복지 기관 지원 및 임직원이 봉사 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모범적인 기업 사회 공헌 활동을 하고 있다. 권의경 대표는 “나눔명문기업으로 가입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기업의 사회적 사명과 책임을 다하고, 지역사회를 위해 활발한 사회 공헌 활동을 지속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주)닷넷소프트 임직원, 착한일터 참여

(주)닷넷소프트(대표이사 최병준) 임직원들이 착한일터에 가입해 10월 15일 헌판 전달식을 진행했다. 최병준 대표이사는 “직원들이 다 함께 나눔에 동참해 그 의미가 깊고, 매월 사랑과 정성을 모아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주)닷넷소프트는 소프트웨어 판매 및 솔루션을 컨설팅하는 IT 전문 기업으로, 2015년부터 매년 저소득층 학생 100명에게 교통카드를 지원해오고 있다.

경남

현대위아 임직원, 치매 어르신을 위한 성금 전달

현대위아(대표이사 김경배)는 ‘1% 기적’ 캠페인의 일환으로 ‘저소득 위기 및 치매 어르신 돌봄 사업 지원’을 위한 성금 전달식을 진행했다. 성금은 임직원이 월급의 1%를 모아 지역사회를 돕는 1%의 기적으로 마련했다. 전달받은 성금은 저소득 위기 및 치매 어르신을 위한 돌봄 서비스에 활용할 스마트 로봇 구입비에 사용한다. 현대위아 관계자는 “반려 로봇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에게 벗이 되어 삶에 활력을 불어넣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마사회 창원지사, 1인 가구 밥술&백미 지원

한국마사회 창원지사(지사장 이준근)는 ‘사랑의 압력밥술’ 45개와 백미 10kg 45포(1,000만 원 상당) 지원 전달식을 진행했다. 이날 전달식은 임흥택 중앙동장과 중앙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중앙동행정복지센터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전달받은 밥술과 백미는 중앙동에 거주하는 중·장년층 등 1인 가구 취약계층 45가구에 전달할 예정이다.

제주서부경찰서 박맹준 생활안전과장, 제주안전문화대상 시상금 기부

지난 10월 4일 제주서부경찰서 박맹준 생활안전과장이 도내 어려운 이웃에게 사용해달라며 성금 200만 원을 기탁했다. 기탁받은 성금은 박맹준 과장이 '2019 제주안전문화대상' 사회 안전 분야 개인 부문 우수상을 수상하고 받은 시상금으로, 도내 어려운 이웃의 생계비·의료비 등을 지원한다. 박맹준 과장은 "큰 금액은 아니지만 어려운 이웃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줄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제주소주 푸른밤, 나눔 활동 업무 협약 체결

제주소주 푸른밤(대표 우창균)은 제주 사랑의열매와 지역사회 나눔 활동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다. 두 기관은 나눔문화 확산과 도내 어려운 이웃 돕기 등 지속적인 나눔 활동을 추진하기로 했다. 제주소주 푸른밤 문성후 경영지원본부장은 "나눔문화를 확산함으로써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제주소주 푸른밤이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소주 푸른밤은 태풍 피해를 입은 가구를 대상으로 복구 지원 봉사 활동을 펼칠 바 있다.

원주 아모르컨벤션웨딩, 나눔명문기업 1호 가입

지난 10월 2일 원주 아모르컨벤션웨딩(대표 김종태, 강원 아너 17호)이 나눔명문기업 1호로 가입했다. 원주 아모르컨벤션웨딩은 2006년부터 매년 원주시 관내 노인을 대상으로 경로잔치를 열고 있으며, 소외 계층을 위한 다양한 나눔 활동을 펼치고 있다. 김종태 대표는 "시민으로부터 받은 과분한 사랑과 관심을 되돌려주고 싶다"며 "지역의 많은 법인이 참여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춘천시 나눔봉사단, 바자회 수익금 기탁

지난 10월 18일 춘천시 나눔봉사단(단장 이월선)은 사랑의바자회 수익금 200만 원을 강원 사랑의열매에 전달했다. 전달받은 기부금은 지난달에 열린 제8회 춘천 댄스 스포츠 페스티벌 부대 행사로 진행한 대회 참가자의 기증 물품 및 나눔봉사단 후원 물품을 판매한 수익금이다. 이월선 단장은 "지역사회 나눔문화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어 기쁘며, 소외받는 아이들과 어르신들에게 힘을 줄 수 있도록 단원들과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시 첫 '행복 착한거리' 탄생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침산리상가번영회 속 50여 개 점포가 착한가게에 가입하면서 세종시 최초의 '행복 착한거리'가 탄생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춘희 세종시장, 세종 사랑의열매 홍영섭 회장, 차성호 시의원과 의원들, 침산리상가번영회 이기홍 회장, 조치원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 김동진 위원장, 착한가게 가입 50여 개 점포 대표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기홍 회장은 "우리 행복 착한거리가 이름을 널리 알려 전국의 명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중앙신협 대통령 표창,

이숙우 아너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수상

지난 10월 10일 KBS 신관 TV 공개홀에서 열린 '2019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 시상식에서 세종중앙신협이 대통령 표창을, 이숙우 성원벤처메디칼 대표가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세종중앙신협은 세종시 나눔명문기업 1호로 매년 이웃사랑 실천 운동으로 2,000만여 원씩 나눔을 수년 동안 진행해왔다. 이숙우 성원벤처메디칼 대표는 세종 여성 1호 아너 회원으로 나눔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해왔다.

중구 칼국수 가게 9개소, 착한가게 단체 가입

대전 중구 관내 칼국수 가게 9개소가 착한가게에 두 번째로 단체 가입했다. 착한가게에 단체 가입한 점포는 완도매생이, 흥두깨칼국수, 논두렁추어칼국수, 시골막국수와 응심이, 다올칼국수, 목포팔칼국수, 대전칼국수, 손이가어죽칼국수, 내담으로 총 9개 칼국수 가게다. 칼국수 가게 관계자는 "효 문화 중심 도시인 중구민으로서 우리 지역의 이웃사랑을 알릴 수 있는 좋은 일에 동참하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2019 대전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의 날 개최

대전 사랑의열매는 지난 9월 30일 '2019 대전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의 날' 행사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대전의 나눔문화에 앞장서온 고액 기부자 모임인 아너 회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회원 간 교류를 위해 마련했다. 행사는 2019년 대전 아너 활동 보고, 올해의 아너 회원에게 감사패 증정, 나눔 퍼포먼스 및 아너 회원 간 특별 공연 등의 일정으로 진행했다.

착한가게 3,100호 탄생

중구 학산동에 위치한 울산세민병원 장례식장(대표 김현진)이 착한가게에 3,100호로 가입했다. 이번 착한가게에 가입한 울산세민병원 장례식장은 지역 내 무연고자 장례 봉사를 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울산세민병원 장례식장 김현진 대표는 주기적으로 탈북민 자녀 멘토링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또 한 달에 한 번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무료급식 봉사, 집 청소 봉사 등 지역사회 복지 발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주)덕양, 나눔명문기업 가입

(주)덕양(대표이사 이치윤)은 지난 10월 21일 울산광역시시장실에서 나눔명문기업에 가입하고 인증패를 받았다. 나눔명문기업은 1억 원 이상을 기부하거나 3년 내 납부를 약정하는 중견·중소 기업을 위한 프로그램이다. (주)덕양은 3년 동안 1억 원을 기부하기로 약정하고 울산 나눔명문기업 1호가 되었다. 이치윤 대표이사는 “울산 1호 나눔명문기업이 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울산 지역에서 계속해서 나눔명문기업이 나와 나눔문화가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현대제철 인천공장과 함께한 '푸른 동구 만들기' 나무심기 행사

인천 사랑의열매는 현대제철 인천 공장과 함께 '푸른 동구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재능대학교 옆 녹지에서 나무 심기 행사를 벌였다. 푸른 동구 만들기 사업은 현대제철 인천 공장, 인천광역시 동구, 인천 사랑의열매, 인천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가 함께 2018년 1,400그루를 심으며 진행해온 사업이다. 지역 주민의 건강을 위해 녹지 조성 과 힐링 공간을 제공해 정서적 안정까지 도모하고 있다.



대한건축사협회 인천광역시건축사회 직원 일동, 착한일터 가입

지난 10월 7일 대한건축사협회 인천광역시건축사회(회장 류재경, 이하 인천광역시건축사회) 직원 일동이 착한일터에 가입했다. 이번 가입으로 인천광역시건축사회 직원은 매월 자신의 월급 일부를 이웃을 위해 꾸준히 나누게 된다. 류재경 회장은 “함께 나눔의 뜻을 모아 실천하는 직원들이 자랑스럽다”며 “나눔을 통해 더욱 성장하는 협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충남

한국서부발전(주) 태안발전본부,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

지난 10월 11일, 충남 사랑의열매와 한국서부발전(주) 태안발전본부는 사회적 취약 계층을 위한 '행복한 구둣방'과 '행복충전 푸드 트레일러'(이하 구둣방, 푸드 트레일러) 개소식을 개최했다. 한국서부발전(주) 태안발전본부는 구둣방과 푸드 트레일러 개소를 위해 초기 사업비 4,300만 원을 기부했다. 아울러 태안발전본부와 협력사 직원들은 착한 소비를 통해 사회적 약자가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할 예정이다.



충남 사랑의열매, 사회복지 기관에 차량 전달

충남 사랑의열매는 충남 도내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 서비스를 위한 '사회복지 서비스 차량 지원 사업'을 통해 총 32개소에 8억 원 상당의 차량을 지원한다. 1차로 지난 10월 22일 홍주중환경기장에서 경차 8대, 장애인 승합차 1대를 지원하는 차량 전달식을 진행했다. 이번 사업은 충남 도내 사회복지 기관에 경차 8대, 승합차 21대, 특수 차량 3대를 지원하며, 선정된 기관을 대상으로 차량 관리 교육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충북

영동군 착한가게 100호점 탄생

영동군 영동읍에 위치한 아모르아트웨딩컨벤션(대표 박정일)이 착한가게에 가입해 지난 10월 2일 영동군 착한가게 100호점 현판 전달식이 열렸다. 이날 전달식에는 아모르아트웨딩컨벤션 박정일 대표, 박세복 영동군수, 충북 사랑의열매 이명식 회장, 사랑의열매 영동군 나눔봉사단(단장 양무웅)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박정일 대표는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함께하고자 했는데, 영동군 착한가게 100호점으로 가입하게 되어 더욱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KT&G 상상유니브 충북 운영사무국, 성금 220만 원 전달

지난 10월 7일 KT&G 상상유니브 충북 운영사무국(박지혜 팀장)은 9월 28일 열린 '2019 회회낙락 청춘 놀이터'에서 형성된 기부금 220만 원을 충북 사랑의열매에 전달했다. 이번 성금은 2019 회회낙락 청춘 놀이터 행사에서 시민의 참여로 모인 기부금 110만 원에 행사를 주관한 KT&G 임직원들의 기부금을 더해 마련했다. 박지혜 팀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모금된 기부금은 꿈을 키워가는 청년들을 위해 사용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전남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 4명, 1억 원 기부 완납

지난 10월 21일 전남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 4명이 각각 약정한 성금 1억 원을 완납했다. 4명의 회원은 목포 예치과 김성훈 대표원장, 목포 한국병원 강철수 원장, 목포 중앙병원 이승택 원장, 목포 한마음 약국 고삼수 대표다. 완납한 성금은 전남 사랑의열매를 통해 목포 관내 저소득 세대를 위한 생계비, 장학금 지원, 사회복지시설 사업비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꿈·희망과 함께 전달됐다.



광운리더스클럽, 1,000만 원 기탁

지난 10월 23일 광주은행의 동반자 광운리더스클럽(중앙회장 김홍균) 회원들이 전남 사랑의열매에 성금 1,000만 원을 전달했다. 성금은 광운리더스클럽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모였으며, 지역의 소외된 이웃을 위해 사용한다. 김홍균 중앙회장은 “광운리더스클럽은 지역의 경제성장을 견인해오며 사회 공헌 활동에 앞장서는 지역 최고의 클럽이라 자부한다”며 “앞으로도 광주은행과의 긴밀한 협력으로 지역 상생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산옥항아리보쌈, 전북 2,100번째 착한가게 가입

군산시 나운3동에 위치한 옥항아리보쌈(대표 이홍철)이 전북 지역 2,100번째 착한가게에 가입했다. 옥항아리보쌈 이홍철 대표는 “따뜻한 우리 동네를 위해 작은 용기를 가지고 내디딘 첫걸음이 전북 지역에서 2,100번째 착한가게라는 큰 책임감이 됐다”며 “다른 분들도 많이 참여해 더 따뜻한 우리 동네를 만드는 데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전북 1호 부자아너, 패밀리아너 탄생

엔젤요양병원 임해곤 이사장은 전북 58호 아너 회원에 가입했다. 이번 임해곤 이사장의 가입으로 전북 지역 최초의 부자아너, 패밀리아너가 탄생했다. 임해곤 이사장의 아버지 임숙헌 씨는 전북 37호 아너이고 어머니 강경순 씨는 전북 45호 아너다. 가입식은 어머니 강경순 아너의 팔순 잔치를 위해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이루어졌다. 임해곤 이사장은 “앞으로도 모두가 행복한 전라북도 만들기 위해 해야 할 일을 고민하며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부산

다대치과의원 손기찬 대표원장, 아너 가입

부산 사랑의열매에서 176번째 아너 소사이어티 멤버가 탄생했다. 지난 9월 26일 사하구 다대동에 위치한 다대치과의원의 손기찬 대표원장이 176번째 부산 아너 소사이어티에 가입했다. 손기찬 대표원장은 평소에도 늘 사랑하고 선을 베풀며 살려고 노력해왔다. 손기찬 대표원장은 “나의 작은 나눔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많은 이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사)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부산지부 착한복지센터 21개소 동시가입

부산 사랑의열매 착한가게 캠페인에 (사)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부산지부(지부장 장삼진) 착한복지센터 21개소가 동시에 가입했다. 이로써 부산 사랑의열매 착한가게 800호가 탄생했다. (사)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에서 모은 성금은 10월 사업 협약을 통해 연간 1,300만 원 규모가 될 예정이다. 성금은 부산 사랑의열매를 통해 전액 저소득 가정 노인 세대에게 전달한다.

대구

(주)금복주, '맛있는참' 대구·경북 사랑기금 5억 원 출연

대구·경북을 대표하는 주류 회사 (주)금복주(대표이사 이원철)가 지난 10월 1일 '맛있는참' 대구·경북 사랑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으로 (주)금복주는 올해 연말까지 총 5억 원의 지역 사랑기금을 조성해 기부할 예정이다. 성금은 지역의 소외 계층과 어려운 이웃 지원 사업에 사용한다. 이원철 대표이사는 “맛있는참 오리지널 수익금으로 따뜻한 대구·경북을 만들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대구 사랑의열매, '2019년 기부자 감사의 밤' 개최

지난 10월 15일 대구 사랑의열매는 '2019년 기부자 감사의 밤' 행사를 열었다. 행사에는 20여 개의 대구 주요 나눔 기업 대표와 관계자, 권영진 대구시장, 대구 사랑의열매 김수학 회장과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대구의 소외된 이웃을 돕기 위해 지속적으로 나눔에 참여한 기업을 한자리에 모으고 성금의 지원 내역을 알리며 감사 인사를 전하기 위해 마련했다.

경북 사랑의열매, 태풍 피해 긴급 구호비 1억 2,000만 원 지원

경북 사랑의열매는 10월 7일, 제18호 태풍 미탁으로 피해를 본 이재민을 위해 1억 2,000만 원을 지원했다. 이날 경북 사랑의열매 신현수 회장은 영덕군청과 울진군청을 각각 방문해 태풍 피해 복구 및 긴급 구호비로 이희진 영덕군수에게 5,000만 원, 전찬걸 울진군수에게 7,000만 원을 전달했다. 신현수 회장은 “작년에 이어 태풍 피해로 큰 충격과 실의에 빠진 영덕·울진 지역 이재민들에게 위로를 전한다”고 말했다.



경북 사랑의열매, 울진지역 태풍 피해 복구 활동 펼쳐

지난 10월 11일, 경북 사랑의열매 신혜영 사무처장 및 직원들과 사랑의열매 나눔봉사단 단원 20여 명은 태풍 미탁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경북 울진군을 찾아 복구 활동을 지원했다. 이들은 침수 피해 가정을 방문해 피해 주민을 위로하고 청소 및 환경 정리를 하는 등 복구하는 데 힘을 쏟았다. 신혜영 사무처장은 “현장에서 피해 상황을 직접 보니 심각성을 더 느낄 수 있었고, 본 회의 작은 손길이라도 피해 복구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사랑의열매 다양한 기부 방법



문자 기부
#9004
한 통에 2,000원



ARS 기부
060-700-1212
한 통에 3,000원



온라인 기부
같이가치
with kakao



기념일 기부
좋은 날, 기쁜 마음을
함께 나눠요
문의 02-6262-3082



이벤트 기부
즐거운 행사와
사랑 나눔을 함께
즐겨보세요



**상담 혹은 문의가
필요하다면**
080-890-1212



계좌 기부

예금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국민 003137-04-000306
농협 1082-01-001966
신한 100-013-446845
외환 068-13-21097-3
우리 052-581567-13-101
하나 399-810005-31705



참 좋은 당신이 있어 세상이 1°C 따뜻해집니다

아너 소사이어티는 1억 원 이상 기부했거나 5년 이내 납부를 약정한 개인 고액 기부자의 모임입니다.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바탕으로 더 밝은 내일을 만들기 위해 참여와 지원을 아끼지 않는 사회 지도자들입니다. 국내 최초 고액 기부자 모임이자 국내 최대 기부자 클럽으로, 한국형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현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나눔을 실천하고, 사랑의 가치를 창조해나가며 기부 문화 확산을 이끌고 있는 가슴 따뜻한 리더들입니다.



서울 271호

김준식 조선내화주식회사 부회장
“나눔은 또 다른 나눔의 잉태입니다.”



대구 142호

김영익 수성구청 공무원
“경제적으로 넉넉하지는 않지만 부족하지 않기에 가족들과 상의한 후 아너 소사이어티 가입을 결심했습니다. 앞으로는 성공의 척도가 재산을 어느 정도 축적했느냐가 아닌, 아너 소사이어티 가입 여부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주위 이웃들을 살려볼 수 있는 나눔문화가 더욱 확산되어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행복했으면 합니다.”



전북 57호

이그린 (주)자연미 흥여우 이사
2019년 2월 나눔리더 가입
“아너 소사이어티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잘할 수 있을까 걱정되지만 오늘 나는 마음이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미래가 되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청소년들의 꿈을 위해서 기부하겠습니다.”



전북 58호

임해곤 엔젤요양병원 이사장
전북 1호 패밀리 아너(父 임숙현 아너, 母 강경순 아너)
“앞으로도 모두가 행복한 전라북도를 만들기 위해 나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고민하면서 실천하는 삶을 살 것입니다.”



울산 85호

박원희 동강의료재단 이사장
2017년 착한기업 가입
“이번 기회를 통해 개인으로도 기부를 실천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이웃과 함께 더 좋은 울산을 만들고 싶습니다.”

- **중앙** 현승원 디쉐어 대표이사
- **서울** 백희원
- **전남** 신한울(주)참스디자인 대표이사
김중휘(주)화원약품 대표이사
- **강원** 안춘현 시골막국수 대표



〈사랑의열매〉에 따뜻한 사연을 보내주세요

지난호 독자 의견



이번 호에서는 '2019 대한민국 유산기부의 날 선포식' 기사가 가장 기억에 남는 흐뭇한 이야기였습니다. 이처럼 평생 모은 유산을 기부한다는 소식은 우리나라 현실과는 먼 해외 토픽에서나 가끔 듣는 뉴스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보니 유산이야말로 한 사람이 평생 일궈온 삶의 전부이기에 자식이나 혈육에게만 물려주는 게 전부인 줄 알았으나, 우리나라에도 유산기부라는 의미 있는 약속을 통해 가장 아름다운 삶의 마무리를 실천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며, 그러한 이야기를 감동 깊게 들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부디 우리나라도 유산기부처럼 좀 더 다양한 방법의 기부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과 제도를 정비해 기부자의 숭고한 뜻이 사회에 환원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경기도 포천시 이준임

고령화 시대의 주역인 시니어분들의 왕성한 사회 참여를 위한 사랑의열매의 다양하고도 활발한 지원 사업 소식을 접하게 되어 무척 반가웠습니다. 사랑의열매에서 지원하는 사업을 통해 어르신들이 교통안전 전문가나 치매예방지도사, 음악 연주자로 거듭나셨습니다. 특히 우리 고향 흥성에서는 어르신들이 지역 소식을 전하는 라디오 방송까지 진행하며 적극적으로 지역사회에 참여하시는 모습을 보고 무척 기뻐했습니다. 현재의 노인분들은 오늘날 우리 사회가 누리는 풍요로움을 위해 넓은 날 어려운 환경과 마주치며 악전고투를 하신 희생과 봉사의 역군들입니다. 역전의 용사들이 우리 사회에 다시 긍정적 활력을 불어넣는 건강한 신노년 문화를 형성하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하는 사랑의열매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 충남 홍성군 이영자

'명규 사랑의열매'를 읽고 사랑의열매가 동광임 파워먼트센터와 함께 정신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전환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지원한다는 내용에 감명을 받았습니다. 정신장애인은 사회에서 살아갈 때 일반 사람들과 다른 인식을 받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정신장애인이라는 병력을 밝힌 뒤 취업도 어려워지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지는 곳에서 제대로 생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쩌면 내 옆에서 고립되어가고 있지 않을까 생각해보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 사랑의열매가 지원하는 프로젝트는 사회적 인식을 바꾸는 데 도움이 되고, 저 같은 사람들에게 강한 깨달음을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프로젝트를 발판 삼아 정신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바뀌기를 응원합니다. - 서울시 중랑구 서은수

이렇게 참여하세요

〈사랑의열매〉를 보시고 좋았던 기사나 의견을 보내주세요. 나눔에 대한 즐거운 추억이나 감동적 이야기, 〈사랑의열매〉에 전하고 싶은 말도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의견이 더욱 알차고 따뜻한 〈사랑의열매〉를 만듭니다. 참여하신 분 중 세 분을 추첨해 선물을 드립니다. 보내주시 때에는 이름과 주소, 연락처도 잊지 마세요. **이메일** cckpr@chest.or.kr

독자 선물

독자 의견에 선정된 분에게는 문화상품권(2만 원)과 사랑의열매 기념품을 보내드립니다.



블루투스 스피커



머그컵



에코백

머그컵은 발달장애인들이 그린 일러스트를 담았습니다. 총 네 가지 디자인으로 사진과 다를 수 있습니다.

〈사랑의열매〉를

e-book으로도 만나보세요!



'사랑의열매' 홈페이지에서 〈사랑의열매〉 매거진을 볼 수 있습니다.

PC 홈페이지상단

공동모금회 → 홍보자료 → 출판 및 인쇄 → 회보

모바일 홈페이지 하단 회보

홈페이지 www.chest.or.kr

이방인 아닌 우리 이웃

